

디자인학석사 학위논문

7~8세기 통일신라 삼층석탑의 조형성 연구

A Study on the formative by the 7th and 8th
centuries
the Unified Silla Three storied stone pagoda

2013년 2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IT · 디자인융합프로그램 조형문화디자인전공

이 나 훈

7~8세기 통일신라 삼층석탑의 조형성 연구

A Study on the formative by the 7th and 8th centuries
the Unified Silla Three storied stone pagoda

지도교수 김 종 현

이 논문을 디자인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IT · 디자인융합프로그램 조형문화디자인전공

이 나 훈

이나훈의 디자인석사 학위论문을 인준함
2013년 1월

심사위원장 이 명 아 (인)

심사위원 김 종 현 (인)

심사위원 최 병 건 (인)

목 차

요 약	i
표 목 차	iii
도 목 차	iii
사진목차	iv
I. 서 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1
II. 삼국의 석조문화	3
1. 고구려의 석조문화	3
2. 백제의 석조문화	6
3. 신라의 석조문화	8
III. 삼국의 탑	10
1. 탑의 유래	10
2. 고구려의 탑	11
3. 백제의 탑	12
4. 신라의 탑	14
IV. 7-8세기 통일신라의 석탑	16
1. 통일신라의 역사적 배경	16
2. 감은사지석탑과 고선사지석탑	17
3. 불국사다보탑과 석가탑	19
4. 원원사지삼층석탑	22
5. 창림사지삼층석탑	23
6. 화엄사사자삼층석탑	23

V. 7~8세기 통일신라 삼층석탑의 조형성	25
1. 석탑의 형태	25
2. 석탑의 구조	35
3. 석탑의 장식	40
 VI. 결 론	 49
 참고문헌	 51
영문초록(Abstract)	53

요 약

제목 : 7~8세기 통일신라 삼층석탑의 조형성 연구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에 비해 현재 남아있는 문화재가 많지 않지만, 그나마 오랜 역사의 흔적으로,들로 만들어져 무수한 세월을 건너 우리에게 지난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석조 문화재들이 있다. 이중에서도 석탑은 형태와 사리함에서 출토된 문화재를 통해 고대사회가 가졌던 가치관과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유산이다.

본 연구는 통일신라에서 탄생한 삼층석탑의 형태와 형식, 구조, 장식 등의 특징을 연구하여 석탑이 가진 조형적가치관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한다.

이런 연구를 위해 2장에서는 선행 연구로 삼국의 문화적 배경을 연구 하였다. 고구려는 삼국 중에서 돌을 다루는 기술이 가장 뛰어나 석성과 거대한 왕릉을 탄생시켰다. 백제는 고구려의 석조기술을 바탕으로 발전하여 주변 국가에 건축기술을 전파할 정도로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었고, 최초로 화강암으로 석탑을 만들었다. 신라는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하였던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문화적으로 뒤쳐졌었지만 6세기 진흥왕 때 한강유역을 점령하여 중국과의 교역로를 확보한 이후 사회전반에 걸쳐 큰 발전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7세기 초에는 통일신라삼층석탑형식의 모태가 되는 전탑이 만들어지게 된다. 즉 7~8세기 통일신라의 삼층석탑은 고구려와 백제의 석조기술을 바탕으로 신라의 감성으로 탄생한 것이다.

3장 삼국 탑의 유래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탑의 유래와 형태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조사하여 각각의 탑이 발전해온 방향과 석탑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런 연구를 통해 신라의 탑과 백제의 탑은 형식이 같고 신라는 백제의 도움을 받아 탑이 건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장에서는 통일신라의 역사적 배경과 7~8세기 통일신라시대의 특징적인 삼층석탑들의 기원과 형태 등을 기술하여 통일신라시대 석탑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5장에서는 삼층석탑의 조형적 요소로 ①석탑의 형태 ②석탑의 구조 ③석탑의 장식에 대해 기술하였다. 석탑의 전체적인 형식은 목조건축에서 보이는 시각적 의장이 많이 채용되었고, 이를 석탑에 새롭게 적용시켰다. 그리고 부조로 석탑을 장식하였으며, 원래 석탑이 목탑의 모방에서 시작되어 필연적으로 목조건축물의 형식이 들어갔지만, 석탑의 형태가 갖추어지는 과정에서 간소화된

어 최종적으로 목조건축의 기둥은 탑신에 모각되고, 목조건축의 지붕의장은 우리나라석탑의 대표적인 외장형식으로 남게 된다. 또한 신라에서 만들어졌던 모전석탑의 형식은 육개석반침에 남아 석탑의 전체적인 형태가 완성된다. 석탑은 이러한 형식에 수리적인 비례를 적용하여 아름다운 조형성을 가진 예술품으로 탄생된다. 이렇게 7세기에 삼층석탑의 정형형식이 만들어지고 8세기중반에는 우리나라 석탑역사상 가장 완벽한 비례를 가진 불국사석가탑과 이형형식으로 가장 아름다운 불국사다보탑이 탄생한다. 이후로 석탑에는 불교의 여러 신들을 부조로 장식하는 기법이 발달하게 된다.

7세기말 고선사지석탑에서 처음으로 문비형상조각이 나타났으며, 8세기에 만들어진 원원사지삼층석탑의 기단에 십이지신상이, 1층 탑신에는 사천왕상이 부조로 조각되었다. 그리고 창림사지삼층석탑에서는 최초로 팔부중상이 나타난다. 또한 화엄사사자삼층석탑에서는 기존의 석탑양식에서 벗어나 사자의 형상으로 기단상층을 구성하는 과감한 창의성을 발휘하기도 한다. 석탑에 나타난 각각의 형상은 종교적의미를 가지고 석탑에 나타나게 되었으며, 후대의 석탑건립에 많은 영감과 영향을 주었다.

7~8세기 통일신라 삼층석탑은 비례에서 오는 형태미, 목조건축에서 응용되어진 구조적 특성에 따른 조형미, 섬세한 장식 등에서 그 조형적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적 조형미가 새로운 시각에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변용,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표 목 차

【표5.1】 통일신라 삼층석탑의 형태와 체감각도 1	33
【표5.2】 통일신라 삼층석탑의 형태와 체감각도 2	34
【표5.3】 삼층석탑의 기단과 중국석탑의 기단부 비교	36
【표5.4】 옥개석받침의 예	38
【표5.5】 옥개석의 조로와 후림	40
【표5.6】 석탑의 문비형상	41
【표5.7】 화엄사사자삼층석탑의 천인상	45
【표5.8】 원원사지삼층석탑의 십이지신상(서탑)	46
【표5.9】 원원사지삼층석탑의 사천왕상	47
【표5.10】 창림사지삼층석탑의 팔부중상	48

도 목 차

【도5.1】 한정호논문 기단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의장계획 고찰도	28
【도5.2】 한정호논문 감은사석탑의 수평적 의장계획 고찰도	29
【도5.3】 분황사모전석탑의 체감각도 (69도)	31
【도5.4】 김효을논문 석가탑의 부위별 황금분할	32
【도5.5】 조로	39
【도5.6】 후림	39

사진목차

【사진2.1】 1930년대의 국내 성	4
【사진2.2】 장군총	5
【사진3.1】 인도의 산치대탑	11
【사진3.2】 정림사지오층석탑	14
【사진3.3】 미륵사지석탑	14
【사진3.4】 분황사모전석탑	15
【사진3.5】 의성 탑리오층모전석탑	15
【사진4.1】 감은사지동석탑	18
【사진4.2】 고선사지삼층석탑	19
【사진4.3】 불국사다보탑	20
【사진4.4】 불국사석가탑	21
【사진4.5】 원원사지삼층석탑	22
【사진4.6】 창림사지삼층석탑	23
【사진4.7】 화엄사사자삼층석탑	24
【사진5.1】 현장법사묘탑	35
【사진5.2】 서하사사리탑	35
【사진5.3】 다보탑의 사자	42
【사진5.4】 화엄사사자삼층석탑의 사자형상 기둥	42

I. 서론

1.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긴 다른 나라에 비해 문화유적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는 수많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 사라지기도 했지만, 전통적으로 목재로 된 문화재가 많았던 관계로 화재와 풍화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으며, 특히 많은 문화재들이 몽고의 침략, 임진왜란과 일제의 침략 속에 속절없이 사라져 선조들이 살았던 세계를 살펴볼 많은 단서들이 없어졌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천연적으로 화강암이 많이 산재해 있고, 예부터 돌을 다루는 기술이 발달하여 돌로 만들어진 문화재들이 많이 있다. 화강암은 불에 타지 않고 풍화에 강해 수천 년의 세월을 건너 우리에게 단편적이거나 선조들의 생활상을 보여준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석탑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석탑의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나라에는 전국각지에 1천여기가 넘는 석탑이 있다. 석탑은 특성상 안에 사리를 봉안하는 장치가 있어 사리와 함께 다른 문화재들이 출토되어 찬란한 선조들의 문화를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는 타임캡슐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석탑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에 많은 비중을 두고 연구되어 정작 석탑이 가진 형태의 조형적 가치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본 연구는 많은 우리나라 석탑이 가장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또 정형적인 형태를 가지게 되었던 7~8세기에, 삼층석탑이 탄생하게 된 문화적 배경과 석탑이 가진 형태미, 구조적특성에서 보여지는 조형미, 문양장식 등의 특징을 연구하여 석탑이 가진 조형적 가치관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삼국통일 후 신라에서는 이종기단에 삼층의 석탑이 만들어졌고, 이것은 곧 정형석탑의 기준이 되었으며, 8세기에는 삼층석탑의 건축기법이 최고조에 달하였다. 이때에 만들어진 많은 석탑의 형식과 세부묘사기법은 후대의 석탑건립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범위는 7세기 삼층석탑이 탄생한 시기부터 석탑이 발달하고 정형화된 8세기까지의 삼층석탑을 중심으로

그 조형성을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은 먼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석조문화, 그리고 삼국탑의 유래를 살펴, 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석탑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유추해 본다. 그리고 석탑의 형태와 구조, 장식기법 등을 통해 석탑의 조형적 특성을 유추해 본다.

II. 삼국의 석조문화

1. 고구려의 석조문화

1)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

고구려의 기원은 부여에 그 뿌리가 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B. C.37년에 주몽이 동부여에서 도망 나와 졸본(卒本)에 이르러 비류수(沸流水)¹⁾에 고구려를 세운다. 고구려는 기원전 37년경에 건립되어 668년 신라와 당의 연합군에 무너질 때까지 705년간 중국의 한반도 침략을 막아내는 방파제 역할과 문화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고구려인은 맥족(貊族)과 혈통적으로 관련이 크지만, 이들과 달리 적석총으로 대표되는 거대한 돌무덤을 조성한 특이한 집단이었다. 그러므로 『삼국지』나 『후한서』에서도 고구려와 예맥을 구별하고 있다. 그들은 “돌의 마술사”로서 혼강, 부이강, 압록강중류 일대에서 한사군을 축출하면서 새로운 국가를 이룩한 것이다. 즉 이들은 돌을 이용한 견고한 성곽을 축성하여 중국세력의 침략을 저지하였기 때문에 고구려(구려)라는 국호도 성의 뜻을 가진 책구루(幘構樓)에서 연유된 것이다²⁾. 따라서 고구려의 성은 곧 행정구역이었으며 영토 확장의 전진기지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고구려인들은 현실의 삶은 돌로 성을 만들어 중국에 맞섰으며, 내세의 삶은 돌로 무덤을 만들어 영혼의 세계를 이룩한 것이다. 말하자면 고구려는 “빼어난 돌 문화의 나라”인 것이다³⁾. 뛰어난 석조문화를 가졌던 고구려의 유적으로는 돌무지무덤, 사찰 터의 조사, 주변 국가와 잦은 전쟁에 대비한 산성의 축성술 그리고 화려한 궁전의 모습에서 알 수 있다.

2) 고구려의 성

고구려의 궁터는 현존하는 유구가 없어 건축기법을 알 수 없으나 『후한서』(後漢書) 『삼국지』(三國志)등에 “고구려는 좋은 밭이 없어 힘들여 일해도 식량이 부족하여 식량을 아껴 먹었으나, 궁실만은 화려하게 지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의 궁원은 화려하게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비류수 : 지금의 혼강

2) 삼국지 권 30, 위서 30, 동이전 고구려

3) 신형식, 「고구려사」, 이화여자출판부, 2008, p.68

고구려의 도성으로 알려진 것은 오녀산성, 국내성(사진2.1), 안학궁, 장안성이다. 고구려산성의 특징은 산 정상을 둘러싼 퇴회식 산성과, 치성(雉城)과 용성



사진 2.1 1930년대의 국내성

(甕城)의 활용, 환도산성에서 볼 수 있는 여장(女牆) 아래의 구멍 등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산곡을 하나로 묶는 이른바 고로봉식 산성을 이용하여 장기전에 대응할 수 있었고⁴⁾ 백암성(白巖城)에서 볼 수 있는 “전고한 받침들 위의 굽들이식(퇴물림)쌓기”는 한 모서리가 둥글게 계층을 이루어 직선으로 올라간 윗부분과 조화를 이룬다⁵⁾.

3) 고구려의 고분

고구려 석조문화의 다른 형태인 고분은 압록강 중류일대에 주로 분포되어있는 전기형태에 속하는 적석총(積石塚)과 고구려의 평양천도 이후 대동강유역에 분포되어있는 후기형태의 봉토분(封土墳)이 있다. 후기의 고구려무덤은 무덤 안에 석실(石室)이나 석광(石壙)이 있고 벽화가 그려져 있어 고구려의 문화를 엿볼 수 있다. 돌무지무덤은 고구려 고유의 무덤양식으로 돌을 긴 직사각의 형태로 다듬어 계단식으로 피라미드를 쌓듯이 쌓아올린 것을 말하며, 그 대표적인 유적으로 장군총(將軍塚), 태왕릉(太王陵) 등이 있다.

봉토분은 중국고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다듬은 돌이나 막돌로 돌방을 만들고 회칠이나 관석으로 내부를 마감해 만들고 지붕은 네 귀퉁이를 삼각의 관석으로 귀퉁이를 줄여가며 쌓고, 마지막은 한 장의 돌로 마감하여 만드는데 무덤에 따라서 2~5층까지 쌓는다. 이러한 천장을 투팔천장(鬪八天障)이라고 한다. 투팔천장은 고대 페르시아나 인도등지에서 볼 수 있는 지붕의 구조로 주로 석실의 지붕에 쓰였으나, 목조건축의 천장 장식에도 쓰였다. 봉토분은 석실(石室)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문과 연도를 갖고 있는 무덤이다. 대표적인 봉토분은 안악 제3호분, 각저총(角抵塚), 쌍영총(雙靈寵) 등이 있다.

4) 최상준외, 『조선과 학기술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6, p.196

5) 신형식, 위의 책, p.65



사진 2.2 장군총

적석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장군총(사진2.2)이 있으며, 장군총의 가치는 그 방대성과 견고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축조법의 기술에 있다. 우선 제1층의 큰 돌은 길이가 5.5m가 넘는다. 이렇게 큰 돌을 1100개나 쌓아올릴 수 있는 것은 튼튼한 기초공사와 안으로 오므린 “퇴물려 쌓기”의 축조법이 그 바탕이 된다. 나아가서 자연석의 굴곡을 그대로 살려 받침돌들을 접합시킨 이른바 “그랭이법”은 동요를 막고 안정된 돌 맞춤법의 지혜를 살린 것이다. 그리고 최하단의 돌과 돌의 연결고리에 짜집기를 통해 모양을 갖추었고 수로로 활용하는 공법을 썼다⁶⁾.

돌방무덤중의 하나인 안학3호 무덤은 황해남도 안악군 오국리에 있는 돌방무덤이다. 조사결과 무덤내부에 쓰인 목서명에서 서기357년에 축조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봉분은 방대형(方臺形)이며, 크기는 남북33m, 동서30m, 높이6m이다. 무덤방은 반지하식이며 내부구조는 남쪽인 앞쪽으로부터 널길, 연실, 전실, 후실로 구성되었고, 전실의 좌우에는 조그만 측실이 하나씩 달려 있다. 천장은 투괄천장 방식으로 구축되어 있다⁷⁾.

6) 신형식, 「집안고구려 유적의 조사 연구」, 국사편찬위원회, 1996, p.82

7) 이영춘, 신광섭, 「고분미술」, 서울, 2008, p.39

2. 백제의 석조문화

1) 백제의 역사와 문화

백제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백제의 민족적 특성을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백제는 고구려의 시조 주몽의 둘째 아들 온조가 기원전 18년에 한강유역으로 내려와 건국하였다.” 고 기록한다.

당시 백제국의 건국 장소가 되는 한강유역에는 이미 마한(馬韓)이라 불리는 여러 소국들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북쪽으로부터 새롭게 이주해 내려온 백제 집단에 의해 점차 그 세력을 상실하고 백제의 영역으로 통합되어 간다. 백제의 여덟 번째 왕인 고이왕(古爾王)에 이르면, 백제는 마한의 여러 소국들을 대부분 제압하고 한강유역 전체를 아우르는 강력한 고대국가 중의 하나로 성장한다⁸⁾. 이것에 대한 문헌으로 주서에 “백제는 그 선대가 대체로 마한의 소국이며, 부여의 별종이다.” 라고 했다. 여기에서 볼 때, 백제는 마한지속(馬韓之屬)이며 부여별종(夫餘別種)이라 하여 마한의 한 소국이다가 북방 유이민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백제는 온조왕(B. C. 18)부터 개로왕(475)까지 493년을 하남 위례성을 도읍으로 하였으나, 서기 475년 고구려의 장수왕에게 위례성이 함락된다. 이후 문주왕(475)부터 성왕(538)까지 공주를 도읍으로 하여 63년간 웅진백제시기를 보냈으며, 성왕 때 다시 사비성, 즉 지금의 부여로 천도하여 의자왕 때 까지 122년을 지냈다⁹⁾.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과 백제초기의 고분¹⁰⁾이 고구려의 수도였던 집안시에 있는 돌무지무덤과 형태가 같은 고구려계의 무덤이라는 사실로 백제를 세운 지배층이 고구려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강유역의 마한소국들은 백제에 정복되어 동화되었고 장수왕의 하남위례성 점령이후 웅진으로 천도한 백제는 충청도와 전라도 지방의 마한소국을 정복하여 마한의 대부분이 백제에 속하게 된다.

백제의 문화적 성격은 고구려계 북방문화와 마한의 남방문화가 융합되어 이루어졌다. 백제는 마한의 소국이었으나 한강유역의 지리적 이점으로 일찍부터 한반도서북부의 중국 군현들과¹¹⁾ 활발한 교류를 통해 중국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고 마한의 다른 소국들에게 문물을 전하면서 성장하였다. 4세기 전반에 낙랑군과 대방군이 고구려에게 정복되자, 낙랑과 대방에서 중국대륙과 바다를

8) 위의 책. p.155

9) 삼국사기. 백제본기.

10) 서울 강서구 석촌동의 계단식 돌무지무덤 고분군.

11) 낙랑군과 대방군.

통해 교류를 주도하던 사람들이 고구려의 지배를 피해 백제로 대거 망명하게 되고 백제는 이들을 활용해 중국대륙의 여러 나라들과 해상무역을 시도한다¹²⁾. 백제는 고구려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중국의 문물을 흡수하여 문화적인 선진국가로 성장하였고, 서해와 남해를 접하고 있는 백제는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중심지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다.

백제의 석조문화는 왕권의 확립에 따른 도성과, 주변국가와의 치열한 전쟁에 의한 산성, 묘지제도, 불교의 수용으로 인한 사찰의 건축에서 찾을 수 있다.

2) 백제의 성과 고분

백제의 한성백제초기 궁궐은 고구려와 같이 화려하였고 말기의 궁성은 사치스럽게 하였다. 그리고 백제의 풍납토성과 웅진성, 사비성을 보면 백제는 고구려와 달리 관축기법으로 토성을 쌓았다.

백제의 고분은 시대에 따라서 한성, 웅진, 사비로 나누고 시대에 따른 무덤의 양식에도 변화가 있다. 초기의 무덤양식은 고구려무덤양식인 돌무지무덤을 그대로 계승한 무덤이 석촌동에서 발굴되었고, 이후 굴식돌방무덤이 새롭게 등장한다. 굴식돌방무덤은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중국의 양식을 따른 것이라 판단된다. 이 시기 백제의 영토 내에서는 음무덤이나 독무덤들도 발견되었는데, 무덤의 주인은 백제의 건국 이전부터 살고 있던 마한의 전통적인 무덤양식으로 생각된다.

이들 음무덤이나 독무덤도 후대로 갈수록 점차 굴식돌방무덤과 혼합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이러한 변화과정이 뚜렷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영산강유역의 전라남도 영암과 나주지방을 들 수 있다. 이들 지방은 이전까지 독자적인 정치권력을 지닌 집단들에 의해 소형독무덤과 장구모양의 봉분을 지닌 돌방무덤 등 매우 독특한 형태의 무덤들이 축조되었던 곳이지만, 백제중심세력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게 되는 6세기 이후부터는 서서히 굴식돌방무덤으로 전환되고 동시에 기존의 전통적인 무덤양식들은 소멸된다¹³⁾.

12) 히스토리카한국사편찬위원회, 『고구려+백제』, 이괄리오, 2007, p.198

13) 이영훈, 신광섭, 위의 책, p.180

3. 신라의 석조문화

1) 신라의 역사와 문화

신라의 모태가 되는 것은 사로국이다. 사로국은 신라의 시조인 혁거세의 등장으로 주변 6개의 촌락을 하나로 연결하면서 탄생한다. 사로국이 형성된 지역은 현재의 경주시일대이다. 사로국은 지리적으로 소백산맥·태백산맥·가야 지역에 둘러싸인 현재의 경상북도 일대에서 형성되었던 소국들 중의 하나이다. 이 소국들은 후일 진한이라는 소국연맹을 형성하였으며 언어·종교·문화를 공유하였다¹⁴⁾.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비옥한 충적평야와 온난한 기후로 일찍부터 벼농사와 철기문화가 발달 하였다.

B. C 2세기를 전후하여 진한(秦漢)으로 교체에 따른 정치적 변동으로 북방 고조선계유민의 남하로 정치적 변화가 촉진되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상은 고분의 형태로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것은 토광목관묘(土壙木棺墓)의 성립과 이어서 토광목곽묘(土壙木槨墓)의 등장이 그것이다. 고분의 변화상은 다시 4세기에 이르러 거대한 봉분을 축조하는 적석목곽분(積石木槨墳)으로 바뀌면서 이른바 마립간(麻立干)시대를 맞게 되었고, 6세기중반이후 횡혈식석실묘(橫穴式石室墓)가 등장하였다.

초기 신라사회는 그 주도세력인 박·석·김 씨의 연맹체로 상호연합이나 이합집산을 통해 왕통을 계승해 왔다. 특히 신라는 동해안으로부터의 왜(倭)만이 위협적 존재가 되었으나, 고구려나 백제와 달리 북방민족의 침략이 없어 비교적 정치적 성장이 평탄했다¹⁵⁾.

2) 신라의 도성

기원전 57년에 건국한 신라는 고허촌(高虛村)의 혁거세(赫居世)를 왕으로 추대하고, 궁실을 경주 남산 서쪽에 있는 고허촌에 만들었다. 그리고 혁거세 26년(B. C, 32) 금성(金城)에 궁실(宮室)을 조성하였고, 그 후 몇 차례의 궁실중수 기록들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보인다. 궁실이 아닌 궁궐(宮闕)로서 삼국사기에 처음 나타난 것은 흘해이사금 5년(314)이다. 이것은 삼국이 국가체제를 갖춘 4세기 바로 직후인 점을 생각할 때, 이 시기부터 궁궐다운 궁궐건축이 조영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¹⁶⁾.

14) 이종욱, 「신라의 역사」, 김영사, 2002, p.90

15) 신형식, 「한국의 고대사」, 상영사, 1999, p.182~183

신라의 궁궐을 둘러싼 도성(都城)은 삼국사기에 의하면 처음 혁거세 21년에 축조되었는데, 이를 금성이라 불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주 고적조에는 “금성은 경주 부(府) 동쪽4리에 있는데, 혁거세 때 그곳에 토성을 둘레가 2,407척 되게 쌓았다”고 하였다¹⁷⁾. 파사이사금22년(101)에는 “봄 2월에 성을 쌓고 월성(月城)이라 하였고, 가을 7월에 왕이 월성으로 옮겨 갔다.” 이 월성은 토축성으로 둘레가 3,023척이다¹⁸⁾. 월성은 반달 모양의 성으로 이 월성을 둘러싼 외성은 없다. 다만 왕도를 수비하는 산성을 두었다¹⁹⁾.

3) 신라의 고분

신라의 고분은 이사금기(4세기)에 옛 진한(辰韓)지역을 모두 병합하고, 김해의 금관가야(金官伽倻)와 함께 영남지역에서 가장 뚜렷한 강자로 부각된다. 이 시기의 고분으로 불국사부근 구정동(九政洞) 산봉우리에서 길쭉한 덧널무덤이 나타난다. 5세기 마립간시기에 경주의 왕경인(王京人)은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고자 큰 무덤을 조성하였는데, 이 고분들은 묘광(墓壙)을 파거나 땅위에 덧널(木槨)을 설치하고, 그 속에 널과 부장품을 놓은 다음, 덧널 위와 둘레에 냇돌을 쌓고, 다시 그 위에 흙을 덮어 봉분을 높게 만든 것이다.

중고기²⁰⁾의 고분형태는 돌방무덤인데, 무덤방에 출입구가 있어 여러 번에 걸쳐 시신을 추가로 매장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돌방무덤의 내부구조는 돌로 네 벽을 쌓고, 그 위에 천장돌을 올려 커다란 방을 만들고 앞쪽에 입구를 만든 형태이다. 대개 목관에 시신을 안치하였겠지만, 목관을 사용하지 않고 인체의 형태로 파낸 넓적한 돌 위에 시신을 안치한 경우도 있다. 무덤둘레에는 봉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돌레들을 쌓았는데, 통일신라에 와서는 봉분주위에 십이지상이 새겨진 판석을 두른 형태로 발전하였다²¹⁾.

16) 주남철, 위의 책, p.56

17) 위의 책, p.57

18)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주 고적조

19) 주남철, 위의 책, p.58

20) 중고기 : 6~7세기 전반

21) 이영훈, 신광설, 위의 책, p.21~28

Ⅲ. 삼국의 탑

1. 탑의 유래

탑파(塔婆)는 본래 석가모니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건축물로 고대인도어인 범어(梵語)Sanskrit의 스투파 “stupa”와 팔리어(巴梨語)Pali의 투우파 “thupa”가 중국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소리나는 대로 적게 되면서 중국식 발음인 솔도파(率堵婆)와 탑파(塔婆)라고 표기하게 되었고, 이를 중국인들은 줄여서 탑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인도에서 스투파는 본래 “쌓아올린다.”는 의미를 가진 말이었다. 그러다가 점차 죽은 사람을 화장한 뒤 유골을 묻고 그 위에 흙이나 벽돌을 쌓은 돔 형태의 무덤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결국 탑의 원래의미는 “유골을 매장한 인도의 무덤”이다²²⁾.

탑이 우리나라에 지어진 것은, 고구려에서 불교의 수용과 함께 사찰이 지어졌는데, 그때에 탑이 함께 지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불교의 전래는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 중국 전진(煎秦)의 왕이 승 순도를 불상, 불경과 함께 고구려에 보내면서 공식적으로 불교를 전하였고, 소수림왕 4년(374)에는 진의 승려 아도가 왔다고 한다. 소수림왕은 375년에 초문사(肖門寺)와 이불란사(伊弗蘭寺)를 지어 각각 순도와 아도를 머무르게 하였고, 이후 고구려는 불교가 융성하게 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찰인 초문사와 이불란사에도 탑이 건립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탑의 건립이 있었다는 문헌이나 절터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고구려의 절터인 정릉사지, 상오리사지, 원오리사지, 금강사지 등에는 탑 터가 발견되어 탑은 중국에서 불교의 전래와 함께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불교는 불교의 발원지인 인도에서 전하였으며, 중국 탑의 유래도 인도의 토석탑에 있다. 인도의 탑은 불교창시자인 석가모니²³⁾가 열반하자 시신을 화장하였고, 이때에 나온 사리를 인도의 8개 부족이 나누어 탑을 세웠다. 이후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아쇼카왕²⁴⁾은 석가모니의 탑 여덟 개를 모두 발굴하여 사리를 꺼내 인도전역에 8만 4천기의 탑을 세웠다. 이것이 탑의 발생 시원이 되는 것이다. 인도의 탑은 중국의 누각식 탑과는 전혀 다르게 사진 3.1과 같이 무덤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중국에 전해지면서 누각식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22) 강우방, 신용철 「탑」, 솔, 2007, p.13

23) 석가모니 : 기원전 565~483.

24) 아쇼카왕 :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군주로 열렬한 불교 신봉자였다. (기원전 273~232)



사진 3.1 인도의 산치대탑

『위서』에 따르면 중국 최초의 불사는 명제 영평 11년 낙양에 백마사를 세우며 “부도를 성대하게 꾸미게 되었고 조각의 기법이 매우 뛰어나며 사방식이다. 궁 탑 제도는 천축의 양식에 의거하여 이중으로 구축하였다. 1층에서 3층 또는 1층에서 7층, 1층에서 9층 등이 있는

데 사람들이 전승하며 부도라 하였다.” 중국에서는 탑을 부도(浮屠)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원래 탑의 기능과 목적이 사리를 안치하기 위한 무덤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고 이후 중층누각의 형식이 탑의 전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중층누각 형식의 탑은 우리나라에 불교의 전래와 함께 들어와 지금 우리들이 보는 탑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된다.

2. 고구려의 탑

고구려의 탑은 한 기도 전해오는 것이 없으나, 절터의 기초석이나 무덤의 벽화를 통해서 그 존재를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고구려의 절터는 상오리사지, 정릉사지, 원오리사지, 금강사지, 토성리사지 등이 있으며 대부분이 평양 근처에 산재해 있다.

절터들의 특징은 모두 팔각의 목탑이 중심에 있고, 그 주위로 금당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방형의 목탑으로 추정되는 영탑사의 탑 터와 토탑에 대한 기록, 그리고 석탑의 존재를 알리는 문헌들이 있다.

정릉사지(定陵寺址)는 평양시 역포구역 무진리, 옛 중화군 진파리에 있는 절터로 동명왕릉으로부터 150m전방에 있다. 이 절터에는 1974년 발굴 때 定陵, 口陵寺 등의 글자들이 새겨진 기와조각에 의하여 이 절터의 이름이 정릉사(定陵寺)로 밝혀졌는데, 이 절은 5세기초엽에 동명왕릉을 평양으로 옮겨오면서 능의 원찰(願刹)로 건립한 절이다²⁵⁾. 이 절의 중심에는 팔각의 목탑 터가 있으며 주변을 회랑으로 감싸고 목탑의 좌우에 크기가 서로 다른 금당 터가 있다.

금강사지(金剛寺址)의 탑 터는 사원의 중심에 있다. 금강사는 평양시 대성구역 청암리토성 내에 있다. 옛 지명은 대동군 임원면 청암리이다. 금강사 터는

25) 주남철, 위의 책, p.70

498년에 건설된 고구려의 절터이다. 금강사는 당시 왕궁이었던 안학궁(安鶴宮) 바로 곁에 있는 청암리성 내에 자리 잡고 있던 큰 절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의 전형적인 사원건축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절터는 서남방향으로 놓였는데 절터구역의 중심위치에 팔각건물터가 있고 팔각건물터를 중심으로 사방에 건물이 분포되어있던 자리가 발굴되었다. 팔각건물터가 바로 탑터이며, 금강사 절터는 1938년에 발굴되었다²⁶⁾.

상오리사지의 위치는 평안도 대동군 임원면 상오리에 있다. 사원의 중심에 팔각의 목탑이 있고 동쪽과 서쪽에 금당으로 추정되는 방형의 건물터가 있다.

토성리사지(土城里寺址)는 황해북도 봉산군 토성리에 있다. 토성리사지는 서흥강(瑞興江) 가까이에 있는 한 산기슭에 위치하였고 절터 내에는 팔각의 탑터, 중금당, 동서금당 등의 건물터가 있다²⁷⁾.

영탑사는 평양시에서 서쪽으로 약 40리 떨어진 대보산(大宝山)에 있었다. 영탑사에 석탑의 존재를 암시하는 문헌이 있어 고구려에도 석탑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삼국유사 권 제3<탑상> 제4 고려영탑사(高麗靈塔寺)조에 “이 땅속에 팔면 칠층석탑이 있다”라고 한 기록이 있다²⁸⁾.

오매리사지(梧梅里寺址)는 함경남도 신포시 오매리에 있으며, 이 절터의 가운데에는 방형의 탑터가 있어 고구려에도 방형의 탑이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3. 백제의 탑

백제는 고구려에 불교가 전해진 뒤로부터 12년 늦은 384년에 진(晉)에서 온 호승(胡僧)²⁹⁾ 마라난타에 의해 불교가 전해졌으며, 침류왕이 존경과 예를 극진히 하여 한산(漢山)에 사찰을 짓고 도승 10인을 두었다고 한다³⁰⁾. 백제의 사찰터로 알려진 것으로는 10여 곳이 있으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군수리사지(軍守里寺址), 동남리사지(東南里寺址), 정림사지(定林寺址), 금강사지(金剛寺址), 미륵사지(彌勒寺址) 등이 있다.

백제절터의 특징은 남북 일직선상에 중문, 탑, 금당, 강당의 순서로 일금당일탑식가람의 특징을 보이며 탑의 평면이 방형인 탑이 주류를 이루며, 삼금당일탑식이며 평면이 팔각인 탑이 주류를 이루는 고구려가람의 특징과 큰 대조를 이룬다.

26) 방학봉, 「고구려의 성과 절터연구」, 신성출판사, 2006, p.300

27) 위의 책, p.301

28) 삼국유사 권 제3 탑상 제4 고려영탑사.

29) 호승: 인도나 서역의 승려.

30) 삼국사기 권 24 2침류왕조

백제의 군수리사지는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에 있어 군수리사지로 명명되었다. 탑은 방형의 목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목탑지 중심부 지하에서 보물 제330호로 지정된 군수리금동미륵보살입상, 보물 제329호로 지정된 군수리석조여래좌상 등 2점의 불상과 토기, 철기, 금제 고리, 작은 구슬 등이 발견되어 석가모니의 진신자리 대신 불상을 놓은 것으로 여겨진다.

동남리사지는 군수리사지의 북쪽 부여읍 동남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문, 금당, 강당이 남북 일직선상에 위치하며 특이하게도 탑 터가 없어 탑이 없는 사찰이었음으로 추정된다.

정림사지는 부여읍의 동남리에 위치하며 현존하는 백제의 탑 두 기중 한 개인 정림사지오층석탑이 있다.

금강사지는 부여군 은산면 금공리에 있으며 동향으로 지어진 절터이다. 백제 가람의 특징인 일금당일탑식 가람이고 목탑지의 기반은 이중기단이고 나머지는 모두 단층기단이다. 목탑지의 중심에는 가운데 구멍이 있는 심초석이 있다.

미륵사지는 전라북도 익산군 금마면 기양리에 있으며, 사찰창건이 삼국유사에 기록되기를 “하루는 무왕이 왕비와 함께 사자사에 가다가 용화산 밑에 큰 연못가에 이르니, 미륵 삼존이 못 가운데에서 나타나므로, 수레를 멈추고 경배하였다. 왕비가 왕에게 말하기를 이곳에 큰 절을 짓기를 원합니다. 하니 왕이 그것을 허락하였다. 지명법사를 찾아가 못을 메울 것을 물었더니 신통력으로 하룻밤 사이에 산을 무너뜨려 못을 메웠다. 이에 미륵 삼존을 법상으로 하여 불전, 탑, 랑, 무를 세우고 미륵사라 했다. 이에 진평왕은 백공을 보내어 이를 도왔는데 지금도 그 절이 있다³¹⁾.” 이 사찰의 특이한 점은 3개의 탑과 금당이 있고 그 뒤로 한 개의 강당이 있는 특이한 평면을 가지고 있는데 금당과 탑으로 구성된 원(院)이 세 개 나란하게 놓이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회랑, 문, 강당, 요사채 등으로 이루어진 삼원병렬식(三院並列式)이다³²⁾.

미륵사지에는 우리나라석탑의 시원으로 인정받고 있는 미륵사지석탑이 서쪽에 있으며 가운데에는 목탑이, 동쪽에는 같은 규모의 석탑이 있었다.

31) 삼국유사 권2 기이 2 무왕조

32) 주남철, 위의 책, p.77



사진 3.2 정림사지오층석탑



사진 3.3 미륵사지석탑

4. 신라의 탑

신라에 불교가 전해진 것은 5세기초반 고구려에서 승려 아도가 신라에 들어 오면서 시작 되었다고 여겨 지나, 실질적으로 국교로 공인된 것은 법흥왕 17년인 527년 이차돈의 순교로 불교가 공인받으며 흥륜사(興輪寺), 영흥사(永興寺) 등의 사찰이 건립되었고 불교가 발전하게 되었다.

신라의 탑은 삼국 중에서 가장 많이 남아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그 실체가 현재에 전해지지 않지만 황룡사구층목탑이다. 황룡사는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에 있으며 진흥왕 때 월성 동쪽에 새 궁궐을 짓고자 할 때 황룡이 나타나 그 자리에 절을 짓고 이름을 황룡사라 지었다고 한다. 황룡사목탑은 높이가 80미터에 이르는 대규모의 목탑 이었다³³⁾. 또한 분황사에는 백제의 미륵사지 석탑발생과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분황사모전석탑이 있으며, 삼국통일 후 신라는 감은사지 동서석탑을 시작으로 삼층석탑의 전형인 이중기단에 삼층의 석탑이라는 고유의 형태를 완성한다. 신라 탑의 발전은 특히 백제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신라에는 석탑 말고도 많은 목탑들이 건립되었는데 황룡사지목탑과 사천왕사지, 망덕사지, 보문사지 등에 목탑이 건립되었으며 이 탑들의 평면이 방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팔각의 평면이 주류로 이루어졌던 고구려의 것이 아닌 백제의 사각평면의 형태를 따랐으며, 특히 동아시아 최대의 목탑이며 신라의 삼보 중 하나였던 황룡사구층목탑의 건설에는 백제의 아비지와 함께 200여명의 기술자가 건너가 지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

33) 黃龍寺刹柱本記

이 있는 점, 등이 백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다.

신라에 처음 건립된 석탑으로는 분황사모전석탑이 있다. 분황사는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에 있으며 분황사탑은 선덕여왕 3년 서기634년에 건립되었다. 분황사탑은 우리나라 석탑의 역사에서 미륵사지 석탑과 함께 중요한 위치에 있다. 분황사탑이 건립된 선덕여왕 때에는 신라가 중국 당나라와 본격적인 교류를 취했던 시기이다. 당시 신라에서 당나라수도인 장안(長安)으로 가기위해서 중국에 처음 발을 디는 곳이 바로 산동성 부근이었다. 따라서 산동성 사문탑의 형식이 당시 중국을 오가던 사람들에 의해 전래되었고, 결국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 재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³⁴⁾. 분황사탑은 벽돌이 아닌 안산암을 벽돌모양으로 다듬어 쌓은 탑이다. 벽돌이 아닌 돌로 공들여 탑을 쌓은 이유는, 이전까지 신라에서 벽돌을 이용한 유적이 발견된 것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당시 신라에는 벽돌을 생산할 기술과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신라 모전석탑의 발생은 중국의 전탑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신라의 모전석탑은 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먼저 석재를 작게 다듬어 벽돌처럼 쌓아올리는 형식으로 영양(英陽) 봉감오층모전석탑(鳳甘五層模傳石塔), 영양 현이동(縣二洞) 오층모전석탑, 제천(提川) 장락동(長樂洞) 칠층모전석탑, 정선 정암사수마노탑(淨岩寺水瑪瑙塔)등이 있다. 두 번째 형태는 큰 화강암을 조각하여 결구하되, 지붕을 계단식으로 만들어 모전석탑을 석탑으로 변화시킨 의성 탑리오층모전석탑과 인근 병산사지(氷山寺地) 오층모전석탑, 죽장사지(竹杖寺地)오층모전석탑, 낙산동(落山洞)삼층모전석탑 등이 있다³⁵⁾.



사진 3.4 분황사모전석탑



사진 3.5 의성 탑리오층모전석탑

34) 강우방, 신용철 위외 책, p.122

35) 강우방, 신용철 위외 책, p.126

IV. 7~8세기 통일신라의 석탑

1. 통일신라의 역사적 배경

신라 무열왕 때인 서기 660년 신라의 5만군사와 당의 13만군사가 백제의 황산벌과 서해안으로 진격하여 마침내 백제가 무너지게 된다. 그 후 백제의 부흥군마저 궤멸되고, 당은 백제의 영토를 웅진도독부 관할 지역과 신라의 영역으로 양분하였다³⁶⁾. 그리고 서기 667년에 고구려마저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

당은 평양에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를 설치하여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 및 신라까지도 통괄하려 하였다. 이에 맞선 신라는 670년 3월에 압록강을 건너 당의 지휘 하에 있던 거란병을 대파하였다³⁷⁾. 그리고 남쪽에서는 부여웅³⁸⁾이 당의 조정을 받으면서 통치하고 있던 80여성을 공격하여 빼앗았다. 또한 신라군은 670년 6월 석성(청마산성) 전투에서 당군 5,300여명을 죽이고 곧이어 사비성을 함락하였다. 그 후 신라는 소부리주를 설치하고 아찬 진왕을 도독으로 임명하였다³⁹⁾. 신라는 당군과 일진일퇴 공방전을 계속하면서 고구려유민을 받아들이고 백제의 옛 땅을 점거해 나갔다. 신라는 671년에 펼친 대공세를 통하여 백제의 내륙지역 대부분을 장악한 후 대당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신라는 당군과 그들에 의해 조종되는 반 신라적 백제유민들을 무력으로 제압한 672년 후반기부터 옛 백제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게 되었다⁴⁰⁾.

신라의 삼국통일로 고구려와 백제, 신라는 유사점도 있었지만, 700년간 다른 나라로 살아온 문화와 기술이 신라의 수도인 경주로 모여들고, 서로 융합되어 불교미술은 큰 발전을 하게 되었으며, 8세기에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당과의 연합으로 인한 통일의 결과, 신라는 고구려지역을 상실한 반쪽의 통일을 이루었다. 따라서 이 시기 불교미술의 발달은 고구려의 영향보다는 백제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당시 백제는 문화선진국으로 최고의 건축술로 미륵사지목탑과 이와 크기가 비슷한 황룡사목탑을 건립할 정도의 역량과, 삼국 중 가장먼저 미륵사지에 석탑을 건립한 나라였다. 7세기에 이룩된 통일의 결과 8세기 통일신라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뛰어난 예술문화의 역량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역량은 통일신라기에 석탑의 전형인 삼층석탑을 만들어 냈다.

36) 문안식, 「백제의 흥망과 전쟁」, 해안, 2006, p.530

37)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10년

38) 부여웅 : 백제의자왕의 아들로 백제의 멸망 때 당나라로 끌려갔다가 다시 백제의 옛 땅을 통치하였으나 신라의 공격으로 다시 당으로 돌아간다.

39)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11년

40) 문안식, 위의 책, p.531

2. 감은사지석탑과 고선사지석탑

1) 감은사지석탑

감은사(感恩寺)는 문무왕(文武王)이 왜병을 진압하고자 이 절을 지었으나 완공 전에 죽었고, 그의 아들인 신문왕이 신문왕(神文王) 2년(682)에 문무왕의 유지를 이어받아 창건된 호국 사찰로서, 부왕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으로 “감은사”라 명명하였다고 전한다⁴¹⁾.

1959년에 국립박물관 주관으로 서탑의 해체복원과 더불어 부분적인 발굴이 실시되었고, 1979년에는 정확한 가람배치와 규모를 확인하고자 경주고적발굴조사단에 의하여 전면발굴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중문·금당·강당을 남북일직선상에 놓고 금당 전면 좌우에 삼층석탑을 배치한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쌍탑가람배치(雙塔伽藍配置)임을 밝혀졌고, 창건 이후 두 차례에 걸친 가람변천과정을 확인하였다. 금당(金堂)은 다른 사찰의 건물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기단부 동쪽 측면에 화룡(化龍)한 문무왕이 드나들 수 있는 “용혈”(龍穴)을 만들고 기단 내부에는 장대석 등을 이용하여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용의 상징적 휴식공간을 설치했음을 알 수 있다.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우뚝 솟아있는 2기의 삼층석탑은 각각 융희함으로 치석한 다수의 부재로 결구하였는데, 이중기단 위에 삼층의 탑신부로 구성된 통일신라 초기양식으로서 이후에 건립된 석탑들의 모델이 되었다. 1959년의 서탑에 이어 1996년에는 동탑을 해체 복원하였고, 최종가람의 각 단위 건물지는 정비하여 보존하고 있다. 건물에 사용되었던 각종 와당류를 비롯한 4,0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그 가운데 명문(銘文)이 음각된 지정십일(至正十一年)(1351)명 청동반자(靑銅飯子)의 명문내용을 보아 고려 말까지의 감은사의 범동이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⁴²⁾ 감은사탑은 이전의 신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형태와 양식을 가진 석탑이다. 새로운 형태의 창조는 당시 삼국의 통일과 함께 융화된 문화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감은사지석탑은 백제인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라인들의 감성으로 탄생하였다. 감은사지 동, 서탑은 정림사지 석탑에 비해 탑의 층수가 5층에서 3층으로 간략화 되며, 1층의 옥개석 넓이가 기단의 넓이보다 넓은 정림사지의 석탑에 비해 감은사지의 석탑은 1층의 옥개석 넓이가 기단의 넓이보다 좁다. 정림사지석탑은 지붕의 넓이가 기단보다 넓어 빗물에 의해 기둥이 썩는 것을 방지

41) 삼국유사 권 제2 만파식적

4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http://www.gcp.go.kr>.



사진 4.1 감은사지동석탑

하고자하는 목조건물의 건축양식에 의한 건축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감은사지 석탑은 이러한 불필요한 제약에서 벗어나 기단의 넓이가 넓어짐으로 보단 안정적인 조형성을 확보 하였으며, 기단을 이중으로 하여 쌓고 상층의 기단 높이가 하층의 2배에 이르게 하여⁴³⁾ 새로운 석탑의 형식을 만들었다. 이중기단⁴⁴⁾은 석탑의 높이감과 존엄성을 더한다.

2) 고선사지석탑

고선사지삼층석탑은 원효대사가 주지로 있었던 고선사의 옛 터에 세워져 있던 탑으로, 덕동댐 건설로 인해 절터가 물에 잠기게 되자 1975년에 지금의 자리인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 세워 놓았다. 탑은 이단의 기단위에 삼층의 탑신을 쌓아 놓은 모습인데, 통일신라시대 석탑양식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기단은 여러 개의 돌로 구성하였으며, 각 면에는 기둥 모양을 새겨 놓았다. 탑신도 여러 개의 돌을 조립식으로 짜 맞추었으나, 삼층 몸들만은 하나의 돌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사리장치를 넣어돌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배려로, 석탑을 해체하여 복원하면서 밝혀졌다. 지붕돌은 윗면에 완만한 경사가 흐르는데, 아래로 미끄러지는 네 귀퉁이에서 또렷이 들려있어 경쾌함을 더해주고 있다. 밑면에는 계단모양으로 5단의 받침을 새겨 놓았다. 통일신라시대 전기인 7세기 후반에 세워졌을 것으로 추측되며, 전형적인 석탑양식으로 옮겨지는 초기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양식은 이 탑과 함께 경주 감은사지 동·서 삼층석탑에서 시작되어 이후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된다⁴⁵⁾.

고선사지석탑은 감은사지석탑과 동일한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건립되었으며

43) 한정호, 「감은사지 동·서삼층석탑의 연구」, 동국대석론, 2002, p.26

44) 이중기단이 상징하는 건물의 위엄성으로 경복궁의 근정전등 최고의 권위를 가진 건물에만 2중기단으로 하였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45) 문화재청 참고자료, <http://www.cha.go.kr>.



사진 42 고선사지삼층석탑

시기적으로 감은사지 동탑이 먼저 건립된 이후 서탑이 건립되었고, 이후 감은사지 석탑의 설계를 그대로 적용하여 고선사에 석탑이 건립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세 석탑의 결구방식과 내부구조의 변화는 앞서 건립된 석탑의 불합리한 구조를 점차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⁴⁶⁾.

감은사지와 고선사지 석탑의 각층의 옥개석의 네 모서리를 살펴보면 풍탁을 고정하기 위한 시설로 모서리마다 풍탁공이 뚫려있다. 풍탁공을 자세히 관찰한 결과 일부 풍탁공에는 풍탁을 고정했던 동 못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리고 동 못을 박아 고정하는 수법은 충격에 의해 석재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석재에 구멍을 뚫고, 그 속에 납으로 추정되는 무른 금속을 삽입한 후에 다시 동 못을 박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수법은 이후에 건립되는 신라 석탑에도 그대로 계승된다. 옥개석을 완전히 관통하는 하나의 구멍으로 풍탁을 고정하는 백제석탑과 달리 신라석탑이 못을 박아 고정하는 방식으로 변화된 이유는 아마도 신라석탑의 옥개석이 두꺼워지는 경향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 1층 탑신에 아무런 장식이 없는 감은사 석탑에 비해 고선사지 석탑은 1층 탑신에 문비를 조각하고 표면에 금속장식을 부착했던 작은 구멍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리고 옥개석의 낙수면에 있어 감은사석탑이 대패질 한 듯 날렵한 느낌을 주는 것에 비해 고선사지석탑의 낙수면은 약간 붕긋하게 솟아 불림이 느껴진다. 이것은 아마도 그 재질에 있어 감은사지 석탑이 비교적 치석이 용이한 용회암을 사용한 반면 고선사지석탑에서는 전자에 비해 강도가 높은 화강암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⁴⁷⁾.

3. 불국사다보탑과 석가탑

불국사는 경덕왕10년(751)에 김대성(金大城)이 석불사와 같이 창건하였다.

46) 한정호, 「감은사지 쌍탑과 고선사지 삼층석탑의 비교 고찰」, 石堂論叢 48집, 2010, p.30

47) 위의 논문 p.41~42

불국사 창건에 관해 삼국유사에는 김대성에 대한 일화가 있다. 그 내용을 간추려보면 이러하다. 대성의 집은 가난하였으나 밭을 시주하여 재상의 집으로 다시 태어나 현생(現生) 하기위해 불국사를, 그리고 전세(前世)의 야양(爺孃)을 위해 석불사를 창건했다. 그리고 신림(神琳), 표훈(表訓) 두 성사(聖師)가 각각 머물도록 청했다.⁴⁸⁾

1) 다보탑



사진 4.3 불국사다보탑

다보탑은 불국사 대웅전 앞에 건립된 두기의 탑 중 동쪽에 있으며 우리나라 이형석탑을 대표한다. 또한 다보탑과 석가탑은 법화경(法華經)의 견보탑품(寶塔品)에 의거하여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법화경에는 많은 부분에 걸쳐 불탑 공양과 공덕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특히 견보탑품은 불국사 대웅전 앞마당에 서있는 석가탑과 다보탑이 존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된다. 다보탑의 정식이름은 다보여래상주증명탑(多寶如來常住證明塔)이며 석가탑의 정식이름은 석가여래상주설법탑(釋迦如來常住說法塔)이다.

다보여래부처님은 석가모니부처님 이전의 부처였다. 그는 법화경을 설법하는 곳이라면 어디나 탑 모양으로 솟아나 그 설법의 진실을 증명하리라 다짐하였다. 그런데 석가모니부처님이 법화경을 설법하자 다보여래가 탑의 형상으로 땅에서 솟아났다⁴⁹⁾. 이러한 내용은 석가탑과 다보탑을 형상을 설명하는 근거로 쓰였다.

다보탑은 다보여래의 몸(法身)을 표현하였고 상징하므로 다보탑 구성이 원과 팔각, 사각의 구성으로 이루어 졌으며 계단위쪽 공간에 있는 사자는 불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⁵⁰⁾. 다보탑은 정방형의 지대석위에 높은 1층의 기단을 세우고 사방에는 10개의 돌계단을 설치하고 계단의 소맷돌 위에 돌기둥을 세웠다. 이러한 수법은 불국사 청운교, 백운교의 계단 난간에도 쓰인 기

48) 삼국유사권 제5 대성효이세부모 신문

49) 강우방 신용철, 위의 책, p.172

50) 위의 책, p.176

법으로 원래는 돌난간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⁵¹⁾. 기단위에는 사방으로 네 개의 단면이 1자형인 돌기둥을 세우고 기둥사이에는 불법수호를 상징하는 사자상을 두었다. 네 개의 기둥 가운데에는 목탑의 심주를 연상하게 하는 기둥을 세웠고, 기둥위에는 주두를 세워 갑석의 장식성과 안정성을 확보 하였다. 이 위에 정방형의 돌난간을 세우고 안쪽으로 다시 팔각의 심주를, 그리고 8개의 기둥으로 팔각의 갑석을 받치고 있다. 갑석위에는 다시 8각의 난간을 돌렸다. 난간 안쪽에는 대나무마디가 표현된 기둥으로 연꽃잎 장식을 한 팔각판석을 받치고, 이 판석위에 다시 팔각의 판형초석을 두었으며 초석위에는 꽃의 수술모양으로 밖으로 뻗어나가는 형상의 기둥으로 다시 팔각의 옥개석을 받친다. 팔각의 옥개석 중앙에는 활주를 세우고 노반, 복발, 양화, 보륜, 보개, 수연을 세워 완성하였다.

2) 석가탑



사진 4.4 불국사석가탑

석가탑의 높이는 8.2m이다. 석가탑이 다른 석탑과 다른 부분 중의 하나는 하부기단이 자연석에 맞추어 그랭이질⁵²⁾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돌이 많은 영축산위에 석가모니가 설법하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설명한다⁵³⁾. 석탑 주위의 기단부 모서리 방향과 각 변의 중심방향으로 있는 8개의 팔방금강좌는, 다보여래를 보기위해 모여든 석가모니의 분신불을 안치하기위한 장소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청하게 만들어진 공간으로 여래가 앉을 자리이므로 “금강”이라는 명칭을 붙여 “팔방금강좌”라고 칭한 것이라 생각된다⁵⁴⁾. 석가탑은 다보탑과 마찬가지로 『법화경의』 『견보탑품』과 연결지어 설명되고 있다.

51) 임재완, 「경주 불국사 다보탑 연구」, 동국대석론, 2004, p.51

52) 그랭이질 : 윗면의 목재 또는 석재 등을 아랫면의 울퉁불퉁한 면에 맞추어 깎아내는 일

53) 강우방, 신용철, 위의 책, p.173

54) 최미경, 「불국사 석가탑 · 다보탑 조성에 대한 시론」, 이화여대석론, 1999 p.7

4. 원원사지삼층석탑



사진 4.5 원원사지삼층석탑

원원사지삼층석탑은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에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석탑으로 석등을 중심으로 동서쪽 8.5m 떨어진 곳에 높이 7m의 탑이 대칭하여 서있다. 원원사지의 창건에 대해 삼국유사에 있는데, 간추려보면 “신라 경성 동남쪽 20여리에 원원사가 있었다. 속담에 전하기를 안혜(安惠) 등 사대덕(四大德)과 김유신(金庾信), 김의원(金義元), 김술종(金述宗)등과 함께 창건되기를 원했다⁵⁵⁾.” 1933년 복원된 이 탑들은 통일신라시대 석탑의 전형양식을 따르고 있는 탑이다.

원원사지삼층석탑은 삼층석탑의 전형인 이중기단이며 기단의 결구는 특이

하게도 기단의 면석에는 탱주2개와 우주2개가 표현되어 있고 기단의 각 면에는 십이지신이 조각 되어 있다. 십이지신은 모두 우 향을 하고 있는데 축상만이 좌 향을 하고 있다. 1층 탑신에는 사천왕상이 조각되어 있다. 원원사지석탑이 다른 석탑과의 차이점은, 상층 기단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네 매의 넓은 판석으로 결구되는 것에 비하여 원원사지 석탑은 네 모서리를 L자형 돌로 결구하고 중앙에 한 매의 면석을 끼워 넣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⁵⁶⁾. 또한 이탑에 새겨진 사천왕상은 통일신라 전형석탑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1층 탑신에 사천왕상 배치한 형식은 다른 석탑의 사례와 동일하지만 그 하단인 상층 기단 네 면에 각각 3구씩 십이지신상을 조각한 예는 원원사지 동서 삼층탑이 유일하다⁵⁷⁾. 사천왕상은 7세기 후반 『금광명경』의 유행과 함께 등장하는 도상으로, 탑에 조각된 배경과 의미에 대해 호국신왕 및 불탑의 수호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사천왕상이 탑에 조각될 경우 네 면의 공간이 확보되는 1층 탑신에 배치하는 것을 당연하게 인식하여 왔다.

55) 삼국유사 권5 명랑신인

56) 강우방, 신용철, 위의 책, p.163

57) 김지현, 「통일신라 불탑의 사천왕상과 그 의미」, 문물연구, 동아시아문물연구학회재단, 2010, p.83

5. 창림사지삼층석탑



사진 4.6 창림사지삼층석탑

창림사지삼층석탑은 경주시 배동 산 6-1에 있다. 창림사지삼층석탑의 탑 부재가 사지 내 동쪽 높은 대지에 도괴되어 있던 것을 1979년 복원하였다. 복원 당시 2층 및 3층 탑신석과 탑재 일부가 유실되었기 때문에 옛날 모습 그대로 복원되지 못했고, 복원된 높이는 6.5m이다⁵⁸⁾.

창림사지삼층석탑은 이중기단에 옥개석 받침이 5단인 통일신라의 전형적인 삼층석탑 형식을 따르고 있다. 없어진 상륜부까지 포함한다면 9m가 넘는 큰 탑으로 현재 경주남산에 남아 있는 수많은 탑 가운데 가장 높고 웅장하다⁵⁹⁾.

탑의 가장 큰 특징은 상층기단에 팔부신중(八部神衆)이 조각되어 있는 것이다. 하층 기단면석은 한 면에 탕주 3주가 표현되어있고, 하층 기단갑석은 호각형 2단으로 상층 기단면석받침이 마련되었다. 상층기단면석 각 면 모서리에는 우주가 표현되고, 내부에는 탕주 1주가 표현되어 있으며, 각 면에 팔부신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볼 수 있는 팔부신중은 남면에 아수라(阿修羅), 북면에 가루라(迦樓羅), 서면에 천(天), 건달바(乾達婆)의 4상이며, 나머지 상층기단면석은 새 부재로 복원되었다.

창림사지석탑은 팔부신중이 나타난 최초의 탑이며, 팔부신중이 조각되어있는 탑의 절대다수가 통일신라시기에 집중되고 있고, 팔부신중이 조각된 통일신라시기의 탑은 20여기에 달한다⁶⁰⁾.

6. 화엄사사자삼층석탑

전남 구례군 마산면의 지리산자락에 있는 화엄사는 신라의 진흥왕 5년(544)에 연기조사(緣起祖師)가 세운 절로, 호남제일의 사찰답게 많은 부속건물과 각

58)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2 경주남산종합도록

59) 강우방, 신용철 위외 책, p.165

60) 전경중, 「新羅石塔 八部衆像의 樣式과 變遷」, 文化史學16호, 2001, p.114



사진 4.7 화엄사사사자삼층석탑

황전 앞 석등(국보 제12호), 동 오층석탑(보물 제132호), 서 오층석탑(보물 제133호), 원통전 앞 사자탑(보물 제300호) 등의 중요한 유물들이 전해온다. 사사자삼층석탑은 소나무숲으로 둘러싸인 절 서북쪽의 높은 대지에 석등과 마주보고 서있으며, 이단의 기단위에 삼층의 탑신을 올린 형태이다⁶¹⁾.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은 불국사 다보탑과 함께 우리나라 이형석탑을 대표하는 석탑이다. 전체적인 형태는 전형적인 삼층석탑의 형식을 따르고 있으나, 상층기단은 네 마리의 사자가 삼층석탑을 머리에 이고

있는 형상이다. 가운데에는 합장을 하고 있는 조각상이 서있는데, 전하는바에 의하면 이는 화엄사를 창건한 연기조사의 어머니로 출가한 비구니의 모습이라고 한다. 또한 석탑의 앞에는 탑을 향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스님상은 어머니께 차를 공양하는 연기조사의 상이라 전한다⁶²⁾.

하층기단에는 각 면에 3개씩 12개의 천인상이 조각되어있고 1층의 탑신 각 면에는 문을 조각하고 문의 양 옆에는 각기 인왕상(仁王像), 사천왕상(四天王像), 보살상 등이 조각되어 있다.

61)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http://www.cha.go.kr>)

62) 강우방, 신용철 위외 책, p.190

V. 7~8세기 통일신라 삼층석탑의 조형성

1. 석탑의 형태

우리나라의 7~8세기 통일신라시대는 역사적으로 가장 뛰어난 석탑이 건립된 시기이다. 4세기후반 고구려와 백제에 불교가 전파되어 탄생한 목탑 이래로 석탑이 탄생하기까지 250여년의 시간이 걸렸고, 이후로 석탑의 조형적 특성은 목조건축의 모방에서 발전하여 독자적인 형식을 가지게 되었다. 독자적인 형식에는 다분히 지역적, 민족적 특색이 반영되어 독특한 조형성을 가지게 마련이다. 이장에서는 우리나라 삼층석탑의 형태적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삼층석탑의 효시인 감은사지삼층석탑은 13m에 이르는 높이에 이중의 기단위에 삼층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부여정림사지오층석탑에 비해 두개의 층이 줄어든 형태로 간결해졌다. 탑의 층수는 모두 홀수의 층수로 나타나는데, 홀수 층에서 삼층은 탑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작은 층수이다. 삼층은 간결하면서도 탑으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최소의 층수다.

숫자 3은 홀수인 1과 짝수인 2가 합쳐진 숫자로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룬 완전성을 의미하며, 예로부터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로 널리 쓰인 숫자이다. 동양에서 3은 천·지·인을 의미하며 청동기시대의 청동술의 다리도 3개였다.

우리민족의 역사에도 3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나타나는데, 단군신화에서 환인, 환웅, 단군으로 이어지는 3신 체계와 천부인 3개 풍백, 운사, 우사의 3신, 그리고 3천의 무리처럼 3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온다. 불교에서도 3존불 등 세분의 부처를 모시는 금당이 많이 있고, 불교의 보물도 불·법·승 3가지이며, 또한 인간의 괴로움은 3욕에서 생긴다고 하여 식욕·수면욕·음욕 3가지라고 하였다⁶³⁾. 윤회하는 세상도 육계·색계·무색계의 3계로 나누는 것으로 볼 때 삼층석탑에서 나타난 3층의 의미는 완전한 형태와 삼라만상의 모습이 함축된 형상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삼층석탑은 3이라는 숫자에 있는 함축적 의미뿐만 아니라, 형태적인 면에서도 짧은 탑신에 여러 층의 지붕이 겹겹이 나타나 답답해 보일 수 있는 다층탑의 형태에서 벗어나 과감히 탑의 층수를 줄였으며, 형태적 단아함과 간결함에 수리적인 비례를 적용하여 한층 더 안정되어 보이게 하였다.

삼층석탑에는 화려한 장식적 요소가 적다. 화려한 부조와 세밀한 조각으로 가득한 인도나 중국의 탑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삼층석탑은 표면을 화려하게

⁶³⁾ 주강현 「우리문화의 수수께끼1」, 한겨레출판, p337~154

장식하지 않았으며, 목탑이나 중국의 탑에 비해 크기도 작다. 삼층석탑은 화려함이나 크기 보다는 정교한 구성과 비례에서 예술적 가치를 찾을 수 있는데, 이시기에 가장 뛰어난 구성을 보여주는 석탑은 유명한 불국사다보탑이다.

다보탑은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화려해 보이는 절묘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8세기 중엽 석탑의 역사상 가장 전성기에 탄생한 다보탑은 2층 기단에 방형, 팔각형, 원형 등의 평면으로 구성되었다. 기둥과 면석의 요철로 입체감 있는 표현력과 돌기둥만으로 공간을 구성하였으며, 사각과 팔각의 난간을 둘러 공간에 대한 상상력을 극대화시켰다. 이처럼 우리나라석탑의 가장 큰 미적요소는 바로 구성의 짜임새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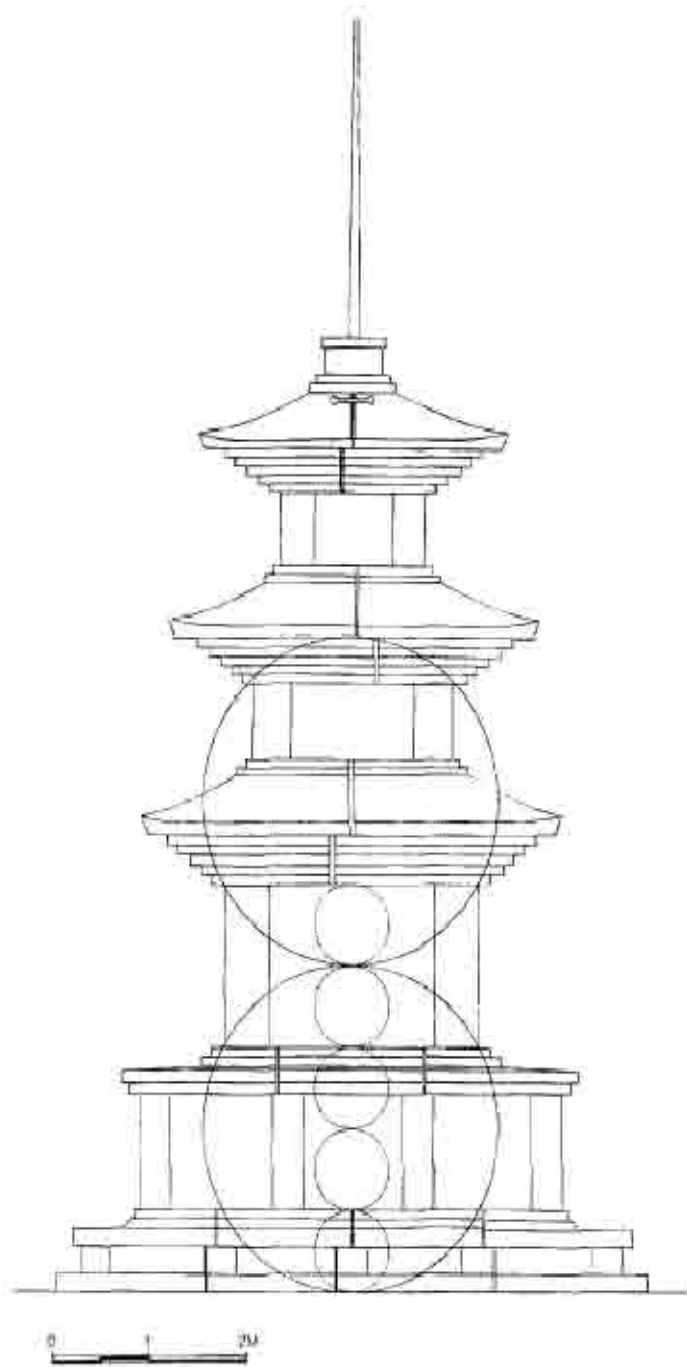
정형형식의 삼층석탑은 이중기단과 삼층의 층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감은사지석탑을 보면 바닥에 하층기단보다 넓게 돌을 깔아 정리하고, 그 위에 기단몸돌·덤개석·상층기단몸돌·덤개석·일층기단몸돌·옥개석받침·옥개석의 순서로 반복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 반복적인 구성은 일정한 비율로 바닥에 변화를 주었다. 낮은 하층기단위에 높은 상층기단, 그 위에 더 높은 1층 몸돌을 올린다음, 그 위에 지붕부를 올리고, 다시 그 위에 크기가 . 낮2층 몸돌과 지붕부를 올려서 넓고 낮은 것 위에 높고 좁은 것, 넓고 높은 것 위에 낮고 좁은 것 등의 순서로 안정감을 깨지 않으면서도 반전의 변화를 주는 다양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표면에는 기둥을 모각하여 입체감을 더해 주는데 각각의 구성에 따라 당연히 길이의 변화가 따라간다. 그리고 기둥의 밑단에도 변화를 주었는데 기둥의 수와 바닥에 따라 밑단을 달리하였다. 기둥의 수가 입면상 5개인 하층기단과 4개인 상층기단기단보등밑단이 비슷하고, 기둥의 수가 2개인 1, 2, 3층 기둥의 밑단은 당개석·가장 넓고 2층, 3층의 순으로 기둥의 밑단이 좁아진다. 이것은 안정성에 기인한 목탑기둥의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석탑에서는 구조적 안정성과 상관없이, 위쪽의 기둥넓이가 좁아지게 하여 시각적 안정감을 확보하였다.

불국사석가탑의 경우도 감은사지석탑과 같으며, 다만 입면상 5개인 하층기단의 기둥수가 불국사삼층석탑에는 4개로 줄어들었다. 삼층석탑의 구성은 시각적 안정감을 중요시하여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구성에 체계적인 비례를 적용하여 안정감을 더하였다. 먼저 삼층석탑의 시원격인 감은사지삼층석탑의 비례에 대한 선행연구⁶⁴⁾를 요약해보면, 석탑의 전체높이1334cm는 지대석 넓이 670cm의 두 배와 일치한다. 이러한 비율은 지금까지 실측 조사된 통일신라시대의 여러 삼층석탑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상층갑석을 포함한 상층 기단의 높이와 1층 옥신석의 높이가 1:1의 비례를 보이고 있다.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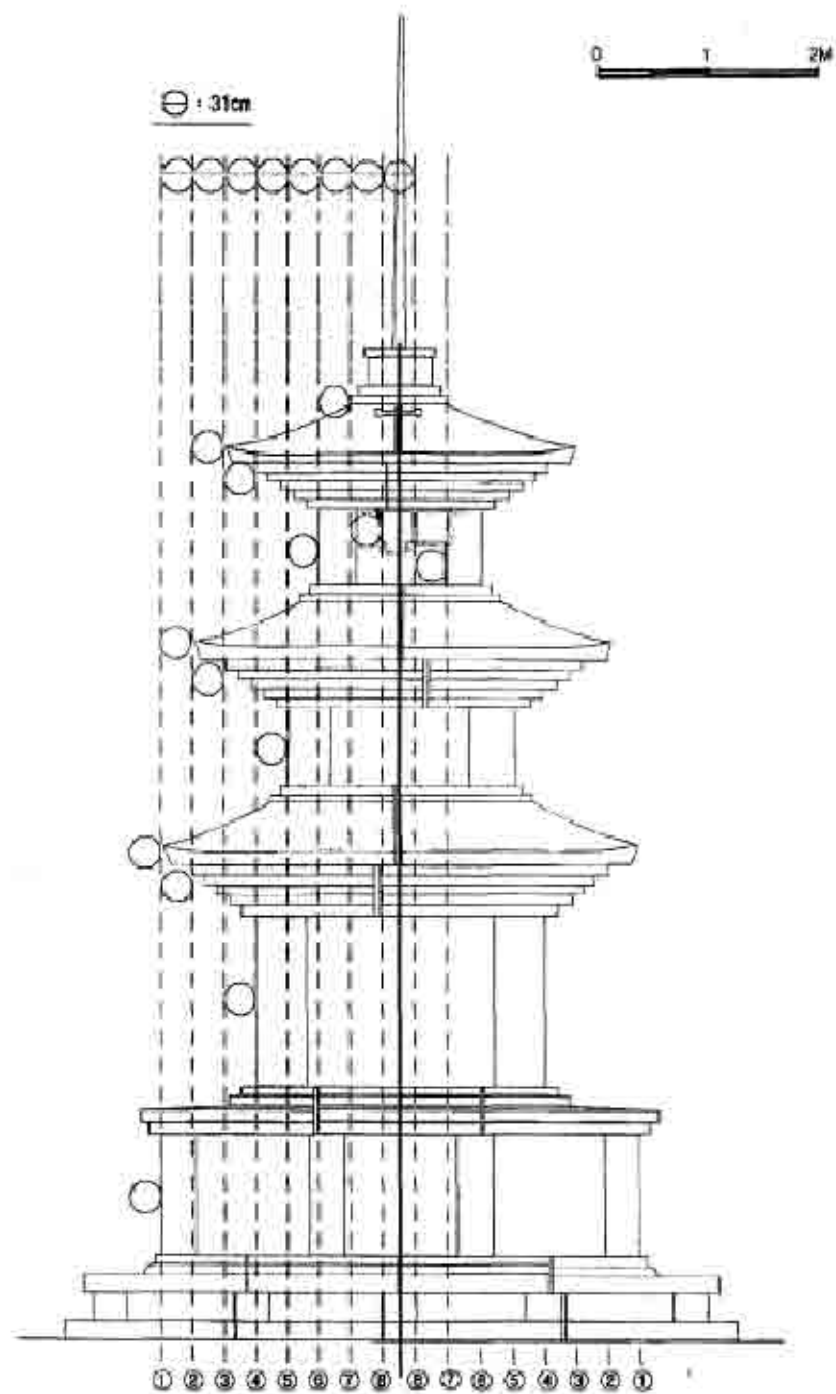
64) 한정호 「감은사지 동·서삼층석탑의 연구」, 동국대석론, 2002.

층기단과 상층기단의 비례는 1:2의 비율로 축조되었다. 또한 1층 옥개석의 높이와 2층 옥신석의 높이가 일치하며, 2층 옥개석의 높이와 3층 옥신석의 높이가 일치하고 있다. 수평적 체감 비를 살펴보면 1층 옥개석 넓이는 478cm로 상층기단 중석의 넓이 474cm와 대략 1:1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1층 옥개석과 다른 부재의 수평적 체감 율은 31cm을 기준으로 체감되고 있다. 즉 1층 옥개석을 중심으로 보면 1층탑신의 넓이는 31의 세배인 93cm가 줄어들었고, 2층 탑신석은 31의 4배인 122cm, 2층 옥개석은 31의 한배인 31cm, 3층탑신석은 31의 5배, 3층 옥개석은 2배가 줄어들었다⁶⁵⁾.

65) 위의 논문 p.21~29



도 5.1 한정호논문 감은사석탑의 기단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의장계획 고찰도



도 5.2 한정호논문 감은사석탑의 수평적 의장계획 고찰도

8세기중엽에 건립된 불국사석가탑은 우리나라삼층석탑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례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이 있는 편이다. 석가탑의 비례에 대한 연구를 정리해 보면, 석가탑은 불국사대웅전 서쪽에 있으며 삼층석탑의 정형으로 이전에 건립된 감은사지탑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전의 삼층석탑에 비해 전체적인 비례가 뛰어나 삼층석탑 중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하고 있는 탑이다. 이러한 비례의 아름다움 때문에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완벽한 비례를 수학적으로 풀어낸 사람은 1930년대부터 1944년 작고할 때 까지 한국탑파의 연구에 기여하였던 고유섭 선생이었다. 그는 석가탑의 경우 하층기단 지대석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의 정점이 1층 옥신상변의 중앙에서 함께 만난다고 관찰하였다.⁶⁶⁾ 강우방, 신용석의 저서 『탑』에서는 다보탑과 석가탑의 기단너비인 14.6자(당척)의 세배, 즉 43자가 불국사 전체를 세우는 기본이 되었다고 하였다. 석가탑은 지대석 한 변의 너비를 입면상으로 올려 정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곳에서 1층탑신의 높이가 정해지고 2층탑신은 1층 지붕들 전체높이의 절반으로 설정되며 3층탑신은 2층 지붕들 전체 높이의 절반으로 설정 된다.⁶⁷⁾ 최근의 연구로는 김효율의 논문이 있는데, 그는 석가탑에 적용된 황금비율을 밝혀내었다. 그의 논문에 의하면 석가탑은 황금 분할된 6개 수직부위로 구성되어 있다. 상분 : 하분의 비율은 1층 탑신이 1:Φ, 나머지는 Φ:1이다.($\Phi \approx 1.618$) 각 수직부위의 하분은 주로 Φ:1 구형(직사각형)인데, 이것은 Φ:1 구형과 함께 정사각형을 황금 분할하여 얻게 되는 황금구형들이다. 상층기단의 면적도 Φ:1 구형인데, 그 속에 있는 우주와 탕주, 그리고 이들 사이의 면적들도 황금구형이거나 그 변화형이다. 각층 옥개의 윤곽은 우등, 전각, 양선의 3중 사선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의 각도는 황금사선 즉 황금구형들의 대각선과 같다.⁶⁸⁾ 석가탑이후로 많은 석탑에서 기단의 넓이와 1층옥신의 높이에 관한 연관성을 보인다. 원원사지삼층석탑의 경우도 기단의 넓이가 1층 옥신석의 높이와 일치하며, 창림사지삼층석탑 또한 기단의 넓이로 정삼각형을 그렸을 때 삼각형의 꼭짓점의 높이가 1층 탑신부의 높이와 일치한다. 창림사지삼층석탑과 원원사지삼층석탑의 상륜부는 유실되어서 정확한 실측은 어렵지만 감은사지석탑과 같이 기단의 넓이는 석탑전체의 높이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이로써 석가탑 이후로 삼층석탑에서 기단의 넓이와 탑신의 높이에 대한 일정한 비율이 관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삼층석탑은 일정한 각도의 체감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8세기에 건립된 석탑의 체감비율은 석굴암삼층석탑 79도에서 구황리삼층석탑 83도 사이의 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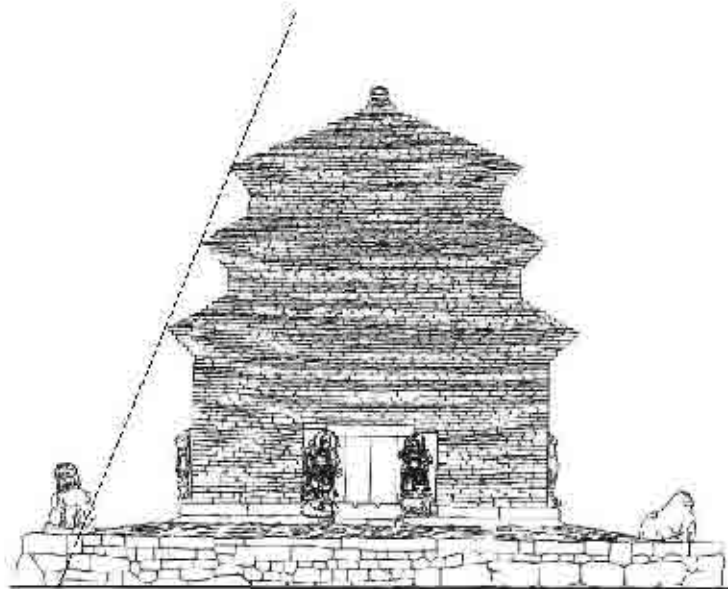
66) 김효율, 「석가탑의 황금비율」, 신라문화 제36집, 2010, p.117

67) 강우방, 신용철, 위의 책, p.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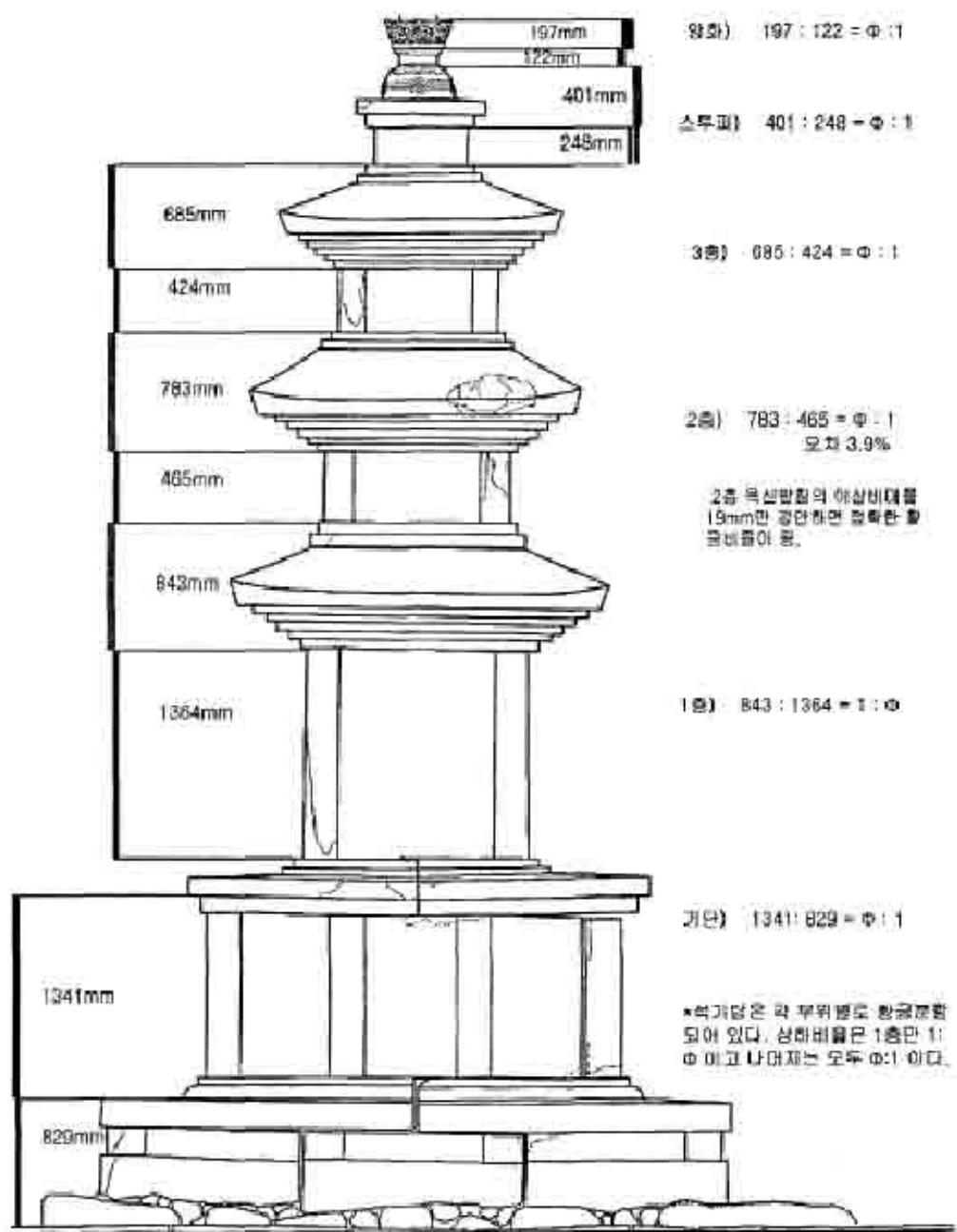
68) 김효율, 위의논문, p.113

감 각도를 보이고 있다. 통일신라 이전에 만들어진 분황사 모전석탑의 체감각도는 69도 이지만, 감은사지 석탑의 체감각도는 81도이며 이후에 대부분의 삼층석탑은 80~83도 사이의 체감율을 보이고 있다. 감은사지석탑에는 일정한 비례체계가 적용되었고, 옥개석의 체감각도에서도 사용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탑에서 보이는 일률적인 특징으로 중국의 탑에서는 옥개석의 체감비율이 일정한 것도 있지만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는 탑이 많다. 특히 전탑의 경우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옥개석의 체감이 급격해져서 전체적 형상은 U자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은 형상이다. 옥개석의 일정한 체감비율은 일본의 목탑에서도 볼 수 있는데, 백제인이 건설한 일본의 호류사목탑의 일정한 체감비율과 백제의 정림사지오층석탑 옥개석의 일정한 체감비율, 그리고 통일신라석탑의 옥개석이 가진 일정한 비율의 체감비율은 모두 백제와 연관이 있다. 정림사지석탑은 백제의 석탑이며 앞서 3장에서 밝혔듯이 신라와 일본은 모두 백제에 의해 탑의 건축술이 전해진 나라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탑을 건설할 때 일정비율로 지붕부가 줄어드는 기법을 사용해 탑이 정연하고 안정감 있게 보이게 하였다.

삼층석탑은 장식적인 요소를 배제하여 표면적인 질감은 담담하게 표현하였으나 다양한 구성으로 변화를 주었고, 직선의 배치와 다양한 넓이의 면에 요철을 주어 입체감을 살리면서 전체적으로는 체계적 비례를 적용하여 안정감을 극대화 시켰다.



도 5.3 분황사모전석탑의 체감각도 (69도)



도 5.4 김효율논문 석가탑의 부위별 황금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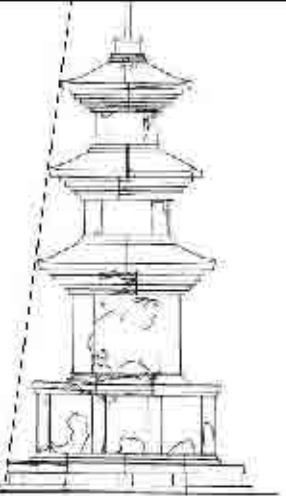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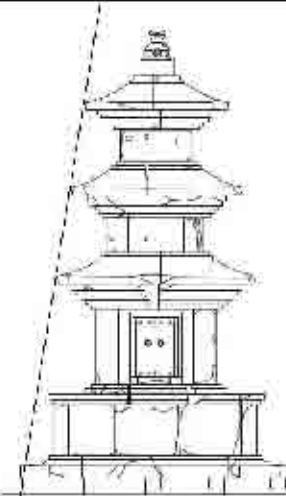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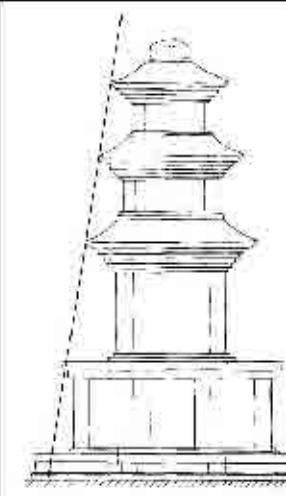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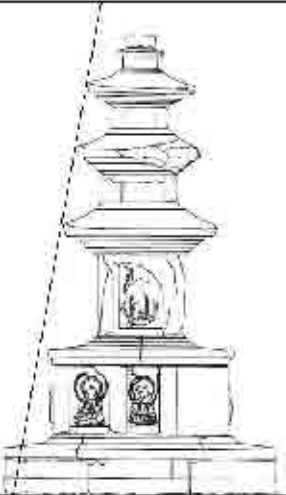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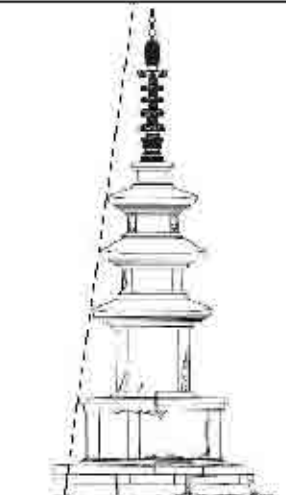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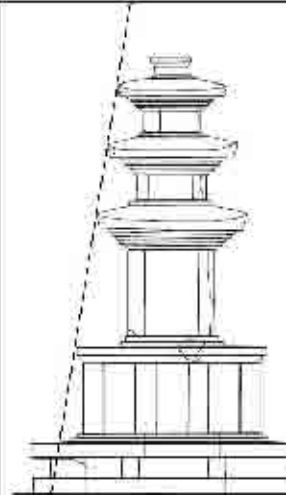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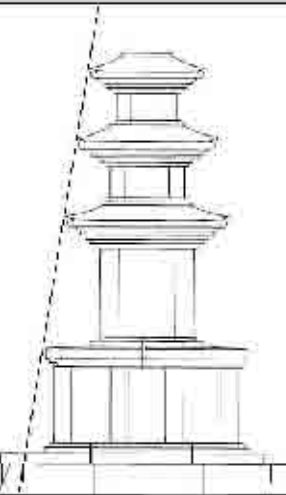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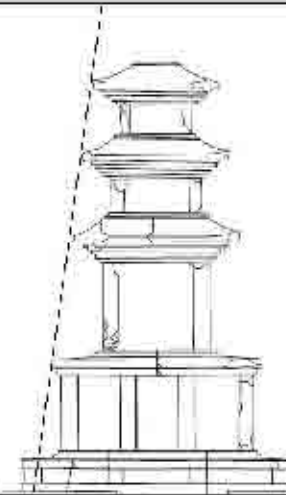

		
감은사지석탑 (81도)	고선사지석탑 (82도)	창림사지석탑 (81도)
		
원원사지동석탑 (81도)	불국사석가탑 (82도)	마동사지석탑 (80도)
		
봉기리석탑 (80도)	천군리동석탑 (83도)	구황리석탑 (83도)

표 5.1 통일신라 삼층석탑의 형태와 체감각도 1

		
신월리석탑 (83도)	화남리석탑 (83도)	남사리사지석탑 (80도)
		
장연사지동석탑 (82도)	금당암석탑 (82도)	천룡사지석탑 (81도)
		
기성리석탑 (80도)	효현리석탑 (80도)	불굴사석탑 (78도)

표 5.2 통일신라 삼층석탑의 형태와 체감각도 2

2. 석탑의 구조

우리나라 최초의 석탑이자, 최대의 석탑인 미륵사지석탑은 목탑의 구조를 그대로 모방하여 탄생하였다. 석탑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석탑에 나타난 목구조적인 형식은 석탑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동안 생략되고 변화하였다. 삼층석탑은 목조건축이 가진 조형적 요소를 특징적으로 남겨 우리나라석탑의 특성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목조건축의 양식을 가진 석탑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진 5.1 현장범사묘탑



사진 5.2 서하사사리탑

인도 간다라양식의 스투파는 벽돌로 지어졌지만 외벽을 코린트양식, 또는 인도코린트 양식의 기둥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장식한다. 인도의 탑은 석조건물의 양식으로 지어졌으나, 중국의 누각식 전탑중의 하나인 서안 홍교사 현장범사묘탑은 목조건축의 형식으로 지어진 전탑이다. 이 탑은 669년에 지어졌으며 외벽에 기둥과 주두, 창방, 평방, 첨자 등이 실제목탑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10세기에 만들어진 완전한 석탑인 중국 남경시의 서하사사리탑 또한 목탑의 형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조각되었다. 팔각의 기단위에 기둥, 평방, 창방이 표현되었고 특히 지붕의 형태는 기와와 서까래의 형태마저 실제와 같이 조각되어있다.

7~8세기 삼층석탑은 목조건축의 구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나, 점차 석탑 고유의 구조로 발전하게 되는데, 8세기중엽에는 목탑의 구조에서 탈피해 석탑의 구조를 가지게 된다. 목탑은 내부에 공간이 있지만 석탑은 내부에 공간이 없다. 석탑의 기단내부는 적심석으로 가운데를 받치고 나머지는 잡석 등으로 채운 구조이며 1층이나 2층 몸들의 경우도 같다. 작은 석탑의 경우는 1개의

돌로 몸돌을 구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석탑의 구조형식이라 하여도 목탑의 구조형식이 반영되었다.

우리나라석탑에 나타난 목조건축의 형식으로 먼저 기단을 살펴보면, 중국의 탑은 기단이 없거나 기초를 위한 기단이 전부이나, 우리나라 석탑의 기단은 대부분 이중기단이며 석탑의 한 부분처럼 느껴진다. 기단의 높이는 한 공간의 여러 채의 건물 중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건물일수록 기단이 높아지고, 이중기단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건물에만 쓰였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의 궁궐에서 경복궁의 근정전, 창덕궁의 인정전, 창경궁의 명정전, 덕수궁의 중화전에만 이중기단을 써 가장 권위가 높은 건물임을 나타내었다. 신라의 감은사지금당의 경우와 고선사지의 금당이 이중기단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석탑들은 모두 가구식기단에 이중기단의 형식이며, 하단보다 상층기단의 높이를 높여 부처를 상징하는 탑의 권위를 높이는 동시에 시각적인 상승 감을 취하고 있다.



표 5.3 삼층석탑의 기단과 중국 석탑의 기단부 비교

초기의 석탑인 감은사지석탑은 우주, 탕주, 면석 등을 별석으로 만들어 끼워 넣었으나 후대의 석탑은 기둥과 면석을 한 개의 부재로 만들었다. 이러한 이유는 탑의 규모가 작아지는 경향과 편리성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목조건축에서는 기단위에 초석을 세우고 기둥을 올린다. 미륵사지의 석탑은 초석위에 돌기둥을 올렸으나, 신라의 정형석탑에서는 돌기둥을 올리는 대신 석판에 기둥을 모각하였으므로 초석이 사라지고 탑신 밑에 이중의 쇄시리를

두어 탑신을 받치게 하였다. 초석의 형태가 이중의 쉼시리로 바뀌었고, 기둥은 석탑에 상징적으로 남아 중요한 장식적 요소가 된다. 정형의 탑에서는 대부분 상층기단에 총 12개의 기둥이 있고 탑신에는 1층부터 3층까지 모두 입면상 2개의 기둥이 표현되어 있다. 다보탑에서는 네 개의 기둥위에 주두와 첨자형식의 부재를 써서 옥개석하부를 받치고 있다. 이것은 비어있는 1층탑신의 구조로 인해, 보다 안정적으로 상부를 받치면서 아름답게 탑을 장식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화엄사사자삼층석탑에서는 사자의 머리위에 하부는 팔각으로 깎고 상부는 연꽃을 조각한 주두를 올려 상부를 안정적으로 받치고 있다. 대부분 석탑에 묘사된 기둥에는 장식이 없어, 화려한 조각을 넣은 중국의 탑에 비해 담담하면서도 정연하게 표현 하였다.

탑신위에는 5층의 옥개석 받침이 있다. 이 옥개석 받침은 목조건축에서는 공포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감은사지석탑에서 5층의 옥개석받침이 생겨난 이래 8세기의 삼층석탑에서는 예외 없이 5층의 옥개석받침이 나타난다.

이런 구조의 유래는 신라전탑에서 찾을 수 있다. 벽돌로 쌓은 전탑의 경우 지붕을 표현하기위해서는 아래쪽에서는 내어쌓기로 벽돌이 밖으로 나오게 쌓아야 하며 반대로 위쪽에서는 들여쌓기로 벽돌을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벽돌로 지붕을 표현한다. 그러나 벽돌로는 무한정 내어쌓기를 할 수는 없기에 전탑의 지붕부분은 짧게 표현될 수밖에 없다. 감은사 이전에 지어진 분황사의 모전석탑⁶⁹⁾의 경우 6단의 내어쌓기를 하여 지붕부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모양이 감은사석탑 옥개석받침의 계단모양과 흡사하다. 이후에 신라에서 지어진 의성 탑리오층석탑⁷⁰⁾을 보면 1층의 탑신은 민흘림기법의 기둥이 있고 기둥위에는 주두가 표현되어 확실한 목탑의 형식이다. 또한 탑신의 윗부분이 아랫부분보다 좁게 하는 오금법이 탑신에 표현되어 있다. 2층 이상의 지붕하부의 구조를 보면 5단으로 내어쌓기를 하여 감은사지석탑의 옥개석받침과 층수와 모양이 같음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볼 때 감은사지삼층석탑의 5단 옥개석받침은 전탑의 형식이 그 기원임을 알 수 있고, 5단의 옥개석받침은 이후로 제작되는 석탑에도 적용되었다.

69) 분황사모전석탑 : 634년 현재높이 9.3m 국보 제30호 인산암을 벽돌모양으로 깎아서 중국의 전탑형식으로 쌓은 탑이다.

70) 탑리오층석탑 : 신라 7세기 말 현재높이 9.6m 국보 제77호 경북의성군 금성리 탑리동, 기단은 석탑식, 탑신의 기둥은 목탑식, 지붕의 구조는 전탑식의 형태를 모두 가지고 있어 신라 석탑의 원형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는 탑이다.(강우방, 신용철, 위의 책, p.128)

	
미륵사지석탑 1층 탑신부	분황사모전석탑 옥개석 받침
	
탐리오중모전석탑 옥개석 받침	불국사삼중석탑 옥개석 받침

표 5.4 옥개석받침의 예

옥개석받침위에는 지붕이 표현되어있는데 감은사지석탑과 같은 큰 석탑의 경우는 옥개석과 옥개석받침을 별도의 석재로 따로 만드는 반면, 작은 석탑의 경우 한 부재로 만드는 경우가 보통이다. 지붕의 표현방식에도 목탑적인 요소가 반영되었는데 바로 추녀부분의 반전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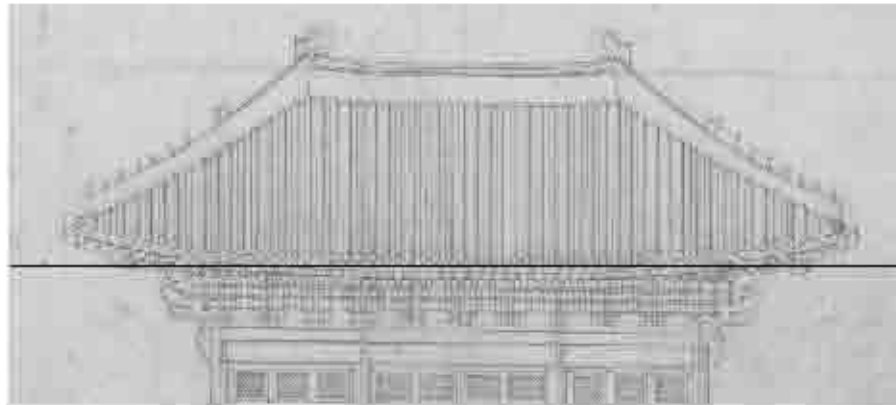
목조건축에서 지붕의 외장에 주로 사용되는 기법으로 조로와 후림이란 기법이 있다. 기와지붕의 처마는 정면에서 볼 때 귀 부분으로 가면서 점차 높아지는 곡선을 가지고 있다. 즉, 입면상 곡선으로 귀 부분의 처마가 높아지도록 처리하는데, 이것을 “조로” 또는 “양곡(仰曲)”이라 부른다. 또한 처마는 위에서 내려다보면 가운데 부분이 들어간 곡선을 이룬다. 이처럼 평면상 처마의 가운데 부분을 들어간 곡선으로 만드는 것을 “후림” 또는 “안허리”라 부른다. 목조건축에서 조로의 역할은 처마의 양쪽 끝이 아래로 처져 보이는 착시현상을 교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조로는 착시현상을 교정하는 수준을 넘어서 위로 올라가 있다. 이런 곡선은 무거운 지붕을 가볍게 보이도록 하는 효과를 낸다. 여기에 후림이 더해져서 처마곡선은 더욱 경쾌해진다. 따라서 조로와 후림은 건물의 반을 차지하는 크기로 건물을 짓누르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지붕을 가볍게 보이도록 한다⁷¹⁾.

석탑에서 지붕에 해당하는 옥개석에는 이러한 기법이 들어가 있으나 석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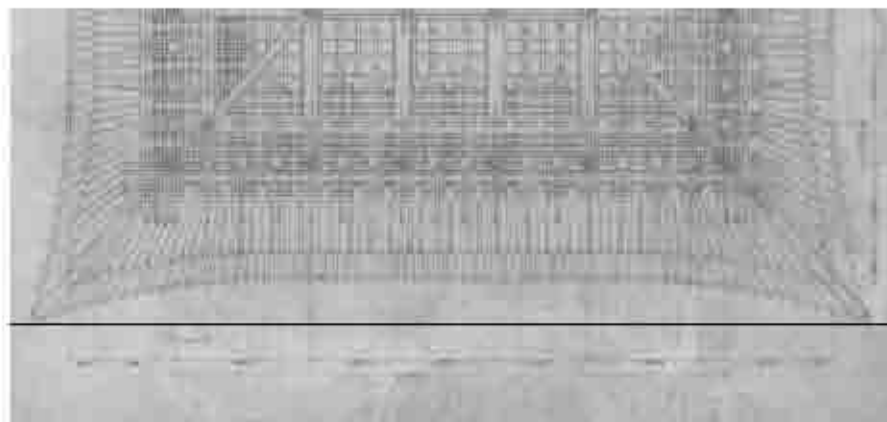
71) 김도경, 위의 책, p.246

서 표현의 한계에 의해 후림은 생략되거나 미약하게 나타나고 조로는 옥개석의 양쪽 끝이 살짝 올라가는 형태로 마무리 하여 목조건축의 의장에 비해 좀 더 담담하게 표현되었다. 이러한 형식은 우리나라 최초의 석탑인 미륵사지석탑에서부터 시작되어 조선시대까지 모든 석탑에 나타나는 조형적 특징이다.

중국의 석탑에서는 목조건축의 양식이 변화 없이 그대로 표현된다. 기단의 부재도 한 부재에 기둥 등을 모각하여 표현 하였고 기둥, 창방, 평방 그리고 지붕의 기와까지 조각하여 목탑을 그대로 석재로 만든 것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중국은 석탑이 발전하지 못하고 전탑이 발달한 것에 있다고 생각된다. 중국의 전탑 또한 목조건축형식을 그대로 반영하여 지어졌으나, 우리나라는 석탑이 발달하여 초기에는 목탑의 형식을 토대로 만들었지만, 목탑의 형식은 석탑에 맞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석탑에 적용되었다.



도 5.5 조로



도 5.6 후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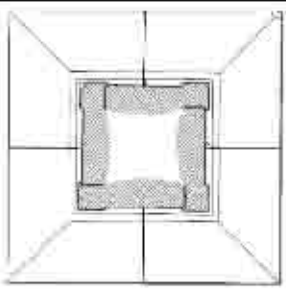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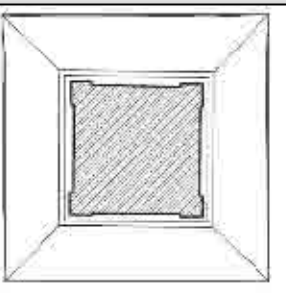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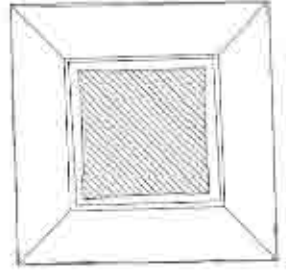
	
감은사지삼층석탑의 1층 옥개석	
	
불국사석가탑의 1층 옥개석	
	
화엄사사사지삼층석탑의 1층 옥개석	

표 5.5 옥개석의 조리와 후림

3. 석탑의 장식

7세기 말 감은사지석탑이 지어진 이래로 이와 같은 형식의 수많은 탑이 지어진다. 시대가 흐를수록 전체적인 형식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기단이나 탑신에는 조각을 하는 기법이 생겨나기 시작하여 8세기에는 다양한 형상의 부조가 탑에 시도되면서 새로운 양식이 탄생한다. 탑신에 부조를 새겨지는 것은 신라만의 독특한 양식은 아니다. 석탑의 발생지인 인도에서는 이미 1세기 전부터 사원 등에 정교한 부조를 새기는 기법이 발달하였고, 불상이 나타나는 1세기 이후부터는 감실을 만들어 불상을 조성하고, 주위를 부조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또한 탑의 내부와 외부에도 화려한 부조를 정교하게 새겨 넣었다. 중국 또한 인도의 영향을 받아 남북조시대에 절벽을 파내 절을 조성하는 기법이 전

국적으로 유행 하였고 특히 운강의 석굴군은 넓은 지역을 인도와 같이 부조기법으로 장식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부조상은 6세기중반으로 추정되는 백제의 마애삼존불이 가장 오래된 부조상이다. 이후 삼층석탑이 건립되었고, 감은사지석탑의 기단과 탑신에는 조각의 흔적이 없으나, 감은사지와 크기는 작지만 거의 같은 형식을 보여주는 고선사지석탑의 1층 몸들에는 문의 형상을 조각하였다. 통일신라 석탑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이 조각은 북쪽을 제외한 삼면에 문의 형상이 조각되어 있으며, 창림사지석탑은 1층 몸들 사면에 문의 형상이 있다.



표 5.6 석탑의 문비형상

문의 형상은 열려있는 공간을 상징한다. 목탑에서는 공간이 열려있으며, 가운데에는 목탑의 끝까지 뻗어있는 심주가 있고 심주를 받치는 사천주가 있다. 이러한 목탑의 특징은 신라의 모전석탑에도 나타나는데, 분황사모전석탑에는 1층 탑신 사면에 문이 있고 감실이 마련되어 있다. 신라의 다른 모전석탑인 의성 탑리오층석탑은 한면에 감실이 있다. 현재 감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으나 원래는 불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통일이전 신라의 모전석탑에는 목탑과 같이 공간을 마련하였으나, 통일이후 석탑이 탄생되면서 감실은 없어 졌다가 고선사지삼층석탑부터 상징적으로 문의형태가 조각되었다.

8세기중엽의 불국사다보탑에서는 사자가 나타난다. 지금은 1마리의 사자만 1층탑신의 기둥가운데에 있지만, 원래는 4마리의 사자가 있었다. 사자의 등장은 분황사모전석탑에서 처음 나타났으며, 화엄사사자삼층석탑, 화엄사원통전 앞 사사자석탑 등이 통일신라석탑에 사자상이 나타난 예다. 사자상은 신라의 왕릉에도 나타나는데 성덕왕릉의 사자상(736년), 폐릉의 사자상(798년), 흥덕왕릉의 사자상(835년) 등 주로 8세기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사찰에서는 8세기 장항리사지의 석불대좌에 부조로 나타났으며 9세기에는 비로자나불의 불상대

좌에 주로 사용되었다.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등 9세기에 13기의 불상좌상에 사자 부조가 사용되었으며 주로 비로자나불좌상에 쓰였다.⁷²⁾



사진 5.3 다보탑의 사자

불국사다보탑의 사자는 연꽃을 조각한 대좌위에 정면을 바라보며 앞다리를 쪽 찢고 당당하게 앉아 있다. 얼굴은 심하게 훼손되어 알아볼 수 없지만 부리부리한 눈의 흔적이 남아있다. 갈기는 곱슬곱슬한 형태로 조각되었고 강인한 다리근육과 발톱은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앞가슴에는 줄의 형태가 장식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세밀하고 정교한 수법으로 조각되어 있어 8세기중엽 전성기조각술의 진수를 볼 수 있다.

화엄사사사자삼층석탑의 사자는 모두 네 마리며 탑의 모서리에 자리 잡고 있다. 사자는 그 형태와 표정 등이 서로 다르며, 네 마리 모두 연꽃을 장식한 대좌에 앉아있다. 머리에는 연꽃조각이 되어있는 주두로 탑신은 받치고 있고, 앞다리와 뒷다리는 붙여서 조각하여 다리사이의 공간 없이 통으로 조각하였다. 입모양은 각기 크게 벌린 것, 다물고 있는 것, 조금 벌리고 있는 것 등이 있다. 가슴에는 3개의 영락이 달린 목걸이로 장식 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부리부리한 눈과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가지고 있다.



사진 5.4 화엄사사사자삼층석탑의 사자형상 기둥

⁷²⁾ 이순영, 「화엄사 사사자석탑에 관한 연구」, 단국대석론, 2007, p.47

다보탑의 사자는 얼굴이 심하게 훼손되어 알 수 없지만, 사자상에서 주목되는 특징으로 얼굴표정을 들 수 있다. 중국의 사납고 무서워 보이는 사자상과 비교하면 위엄 있는 형태가 아닌 다소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부리부리한 눈과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순해 보이고 귀여운 얼굴표정을 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형상으로 패룡의 사자상과 조선시대의 해태상이 있다. 해태상의 표현은 대부분 익살스럽게 표현하여 다소 해학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화엄사사자사석탑의 사자상과 패룡⁷³⁾의 사자상의 표현과도 상통한다. 해학적 표정의 조각물로는 삼국시대의 귀면상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귀면상의 얼굴도 커다란 눈망울과 험악한 표정,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익살스럽게 느껴진다. 이로 미루어 우리나라 조각상의 특징인 해학적 표현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기틀이 잡혀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자는 불교가 출현하기 전부터 이란이나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등지에서 태양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처럼 원래 태양숭배와 관련된 사자는, 인도에서 아쇼카왕의 산치 1탑 등에서 처음 나타나기 시작하여 초기불상의 대좌에서 사자상이 광범위하게 조각되었다.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전해지는 과정에서 사자상도 같이 전해졌고, 중국에서도 인도처럼 불교미술품에서 특히 불상의 대좌(臺座)로 사자가 널리 이용되어 불법수호의 상징적인 동물로 자리 잡게 되었다⁷⁴⁾.

화엄사사자삼층석탑에는 사자 외에도 1층탑신의 서쪽에는 금각역사상이 좌우에 있으며, 남쪽과 북쪽에는 사천왕상이, 동쪽에는 제석과 범천이 조각되었다. 그리고 기단에는 한 면에 3구씩 모두 12구의 천인상이 조각되어있다. 천인상은 크게 주악천인상, 공양천인상, 무용천인상으로 나눌 수 있다⁷⁵⁾. 원원사지삼층석탑에는 기단에 십이지신상이, 탑신에는 사천왕상이 조각되었고 창림사지석탑에는 팔부중상이 있다.

우리나라 석탑의 부조상은 모두 화강암에 새겨져 있다. 화강암은 모스경도 5.5~7정도의 강한 경도를 가지고 있으며 입자의 구성이 불규칙하여 조각의 재료로 사용하기가 어렵다. 중국에서 부조나 조각의 재료로 사용된 석재는 모스경도 3~4정도의 약한 경도와 고운입자를 가진 석회암이나 사암 등으로 이루어져 화강암에 비해 조각 등의 치석이 용이하여 세밀한 조각이 가능하다.

삼층석탑에 조각된 부조상의 특징은 상의 주변을 옷자락이 휘날리며 장식하는데 옷자락의 곡선이 매우아름답다. 특히 원원사지삼층석탑의 십이지신상은

73) 패룡 : 신라원성왕(재위 785~798)의 무덤으로 추정되며 통일신라시대의 왕릉 중 가장 발달한 능묘 양식을 가지고 있다.

74) 이은철, 「한국의 사자석상 연구」 교원대학석론, 1999, p.8

75) 위의 논문, p.26~27

뒤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듯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여러 가닥의 옷자락이 날린다.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이와 비슷한 곡선들이 나오는데 강서대묘⁷⁶⁾의 사신도가 가지고 있는 시원스럽게 뻗어가면서 그리는 곡선, 그리고 구름문양의 구름이 가진 곡선과도 비슷한 양상이다. 부조상들은 거친 화강암의 입자 때문에 가까이에서 보면 거친 질감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세심하고 부드러운 곡선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지리상의 이유로 중국은 인도로부터 부조기법이 일찍부터 들어왔고 석회암이 많이 있는 자연적 여건으로 인해 부조기법이 발달하였다. 중국의 부조기법의 조각은 운강석굴이나 용문석굴처럼 세밀하고 방대하다. 그리고 조각의 깊이가 깊다. 이에 비해 통일신라의 석탑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조각이 어렵고 부조기법도 중국에 비해 늦은 시기에 나타났으나, 중국의 조각기법에 못지않은 정교한 조각기법으로 석탑을 장엄 하였다. 특히 원원사지 서쪽 석탑의 사천왕상의 부조는 조각상과 같은 고부조로 되어있어 석재를 다루는 기술이 매우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석탑에 등장하는 부조상으로는 십이지신상, 사천왕상, 금강역사, 팔부중상, 천인 그리고 사자상 등이 있는데 이들 간에는 위계가 있어 두 종류 이상이 나타날 때는 위계가 낮은 것부터 하층기단 - 상층기단 - 탑신의 순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들은 모두 신중단(神衆段)에 속하는 존재이며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세계관을 이해하여야 한다.

대승불교의 세계관에 따르면 세계는 10개의 다른 존재들로 이루어진 십계(十界)라고 한다. 맨 아래 지옥(地獄)부터 아귀(餓鬼) - 축생(畜生) - 아수라(阿修羅) - 인간(人間) - 천(天) 또는 신중(神衆) - 성문(聖賢) - 연각(緣覺) - 보살(菩薩) 그리고 최상에 부처가 있다⁷⁷⁾.

『인도의 신화』 저자 이은구는 초기의 불교에서는 무신론이며 인간의 평등을 강조하여 계급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불교는 무신론에 바탕을 두고, 브라만에게 의해 형성된 제도와 의례주의를 배격하면서 모든 자의 평등을 제창한 일종의 브라흐만교에 대한 개혁적인 종교로 출발했다. 그러나 불교는 인도의 전통적인 종교 관념인 업과 윤회사상을 받아들였다. 이는 카스트제도라는 인도의 계급제도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힌두교의 중심사상인 것이다⁷⁸⁾. 인도에서는 불교가 힌두교에 흡수되어 석가모니가 힌두교의 신으로 나타났고, 불교에서는 힌두교의 많은 신들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8세기 통일신라석탑의 부조에 나오는 많은 신들의 기원은 힌두교의 신들이 불교에 흡수되어 나타난 신들이었다.

76) 강서대묘 : 고구려(6세기 후반~7세기초)의 벽화고분으로 평안남도 강서군 강서면 삼포리에 있다.

77) 김봉렬, 『불교건축』, 솔, 2004, p.24

78) 이은구, 『인도의 신화』, 세창미디어, 2003, p.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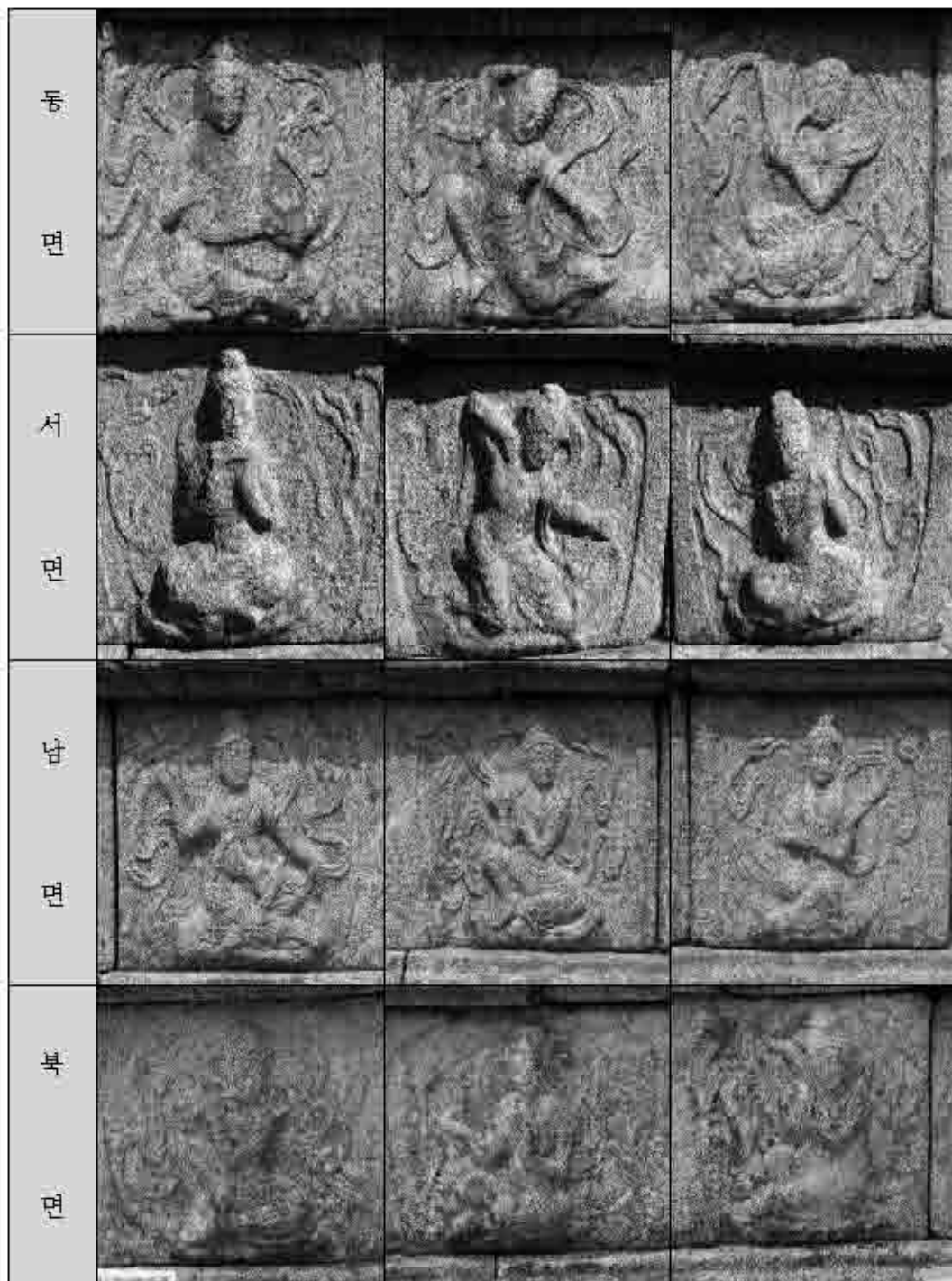


표 5.7 화엄사사자삼층석탑의 천인상











동 면			
서 면			
남 면	멸 실		멸 실
북 면			

표 5.8 원원사지삼층석탑의 십이지신상 (서탑)

동 탑 동 면		동 탑 서 면	
동 탑 남 면		동 탑 북 면	
서 탑 동 면		서 탑 서 면	
서 탑 남 면		서 탑 북 면	

표 5.9 원원사지삼층석탑의 사천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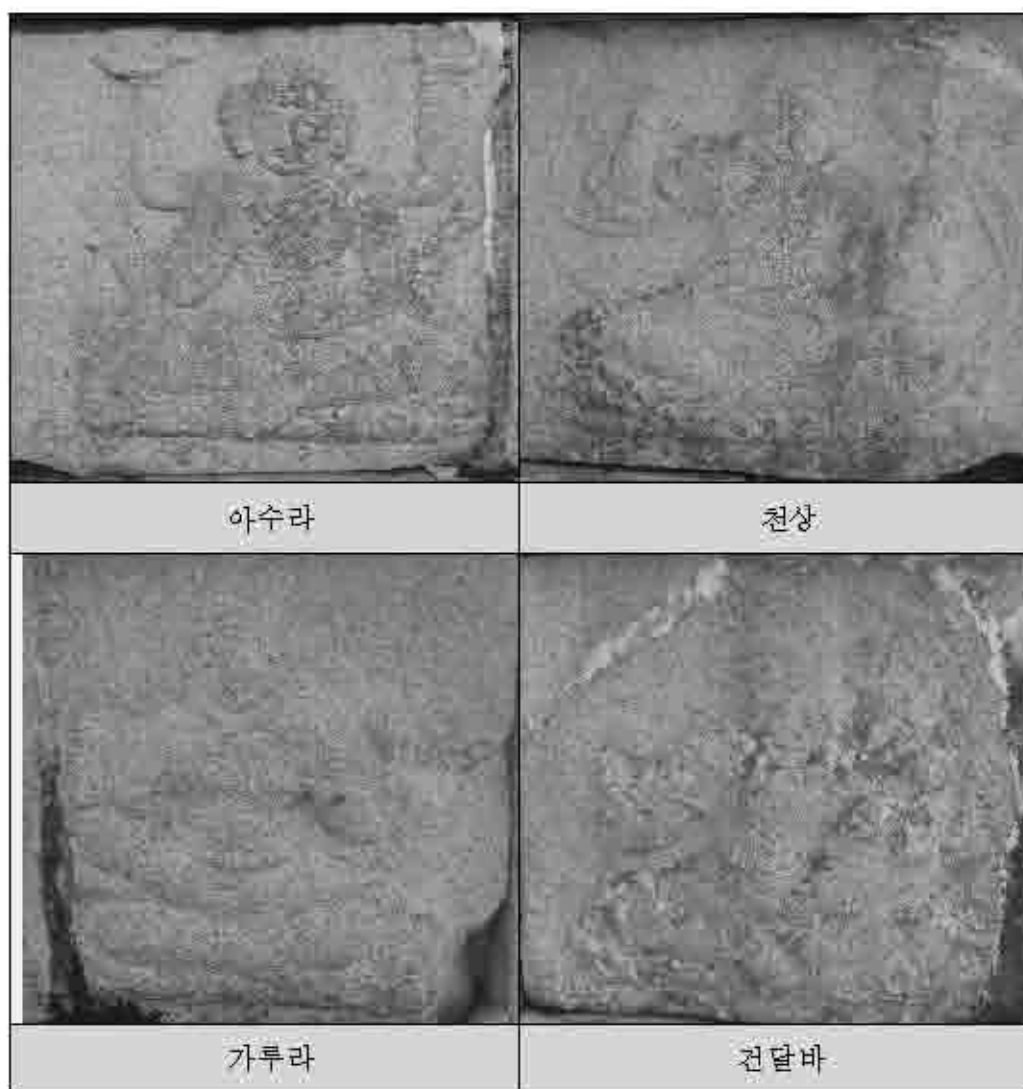


표 5.10 창림사지삼층석탑의 팔부중상

VI. 결 론

우리나라는 목재로 만들어진 문화재가 많았던 관계로 유구한 역사에 비해 문화유적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석탑은 돌이 가진 지속성에 의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선조들의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석탑은 문화적인 측면과 역사적으로 큰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독특한 형태로 뛰어난 조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석탑이 가진 조형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삼층석탑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조형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부여에 뿌리를 둔 고구려는 적석총으로 대표되는 거대한 돌무덤을 조성한 특이한 집단이었다. 이들은 돌로 성을 쌓았으며, 돌로 무덤을 만들어 영혼을 안치한 뛰어난 석조기술을 가진 나라였다. 백제는 고구려의 시조 주몽의 둘째 아들 온조가 기원전 18년에 한강유역으로 내려와 건국하였다. 고구려에 뿌리를 둔 백제는 마한의 여러 소국들을 병합하면서 세력을 키워나가 북방의 유이민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로 발전하였다. 백제의 초기고분은 고구려의 무덤양식인 돌무지무덤을 그대로 계승한 무덤이 석촌동에서 발굴되었고, 이후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중국양식의 굴식돌방무덤이 새롭게 등장한다. 이를 통해 백제는 고구려와 석조문화를 공유하였고,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하였다는 것이 확인된다. 신라는 경주일대의 6개의 촌락을 하나로 연결하면서 탄생한 사로국이 발전하여 등장한다. 신라의 도성과 무덤의 양식을 보았을 때 신라는 대규모 석조공사의 경험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탑은 불교의 전래와 함께 들어왔는데, 고구려는 삼국 중 가장먼저 불교가 공인되었으며 가람과 탑도 가장먼저 건축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구려의 가람은 일금당일탑식 가람과 팔각의 평면을 가진 탑이 주류를 이루며 건설되었다. 백제는 고구려와는 달리 일금당일탑식 가람배치와 평면이 방형인 탑이 주류를 이루었고 주변에 건축술을 전파할 정도로 뛰어난 건축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삼국 중 가장 늦게 불교가 공인된 신라에는 백제와 같은 형식의 탑이 전래되어 신라의 탑은 백제의 기술력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당시 백제의 지역은 모두 흡수하였으나, 고구려의 지역은 대부분 상실하였다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통일 후 신라문화에는 고구려보다 백제의 문화가 강하게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러한 결과물이 신라에서 탄생한 삼층석탑이다. 삼층석탑의 효시인 감은사지삼층석탑을 보면 석탑에 적용된 비례와 옥개석의 일정한 체감비율 등은 백제가 가진 기술이었고

목탑의 모방에서 시작된 석탑은, 이시기에 석탑으로써의 새로운 양식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중국의 석탑이 목조탑의 모방에만 그치고 있으나 통일신라의 석탑은 목조탑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적용하여 석탑화하며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 간다. 이중기단을 써서 석탑의 존엄성을 높이고 상승감을 주었으며, 또한 신라는 자주적인 정신으로 불국사다보탑과 화엄사사자자삼층석탑 등 8세기까지 다양한 양식을 가진 새로운 석탑을 만들어 간다. 여기에 중국과 인도에서 유행하던 부조를 조각하기 힘든 화강암에 새겨 석탑을 장식하였다.

삼층석탑은 새로운 양식으로 탑의 층수를 과감하게 줄여 3이라는 많은 의미를 가진 숫자로 석탑에 이론적 의미를 부여하고 안정감 있는 비율과 비례 그리고 삼층의 간결함과 담담한 형태를 다양한 구성과 면의 요철을 이용하여 독특한 조형성을 완성 하였다. 석탑은 한국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탄생한 독특한 조형성으로 우리에게 디자인에 대한 영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본 논문을 통해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재인 석탑의 조형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통해 한국적 디자인에 대한 이론적 바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 문헌

단행 본

- [1] 강우방, 신용철. (2007). “탑”, 솔.
- [2] 김도경. (2011). “지혜로 지은 집 한국건축”, 현암사.
- [3] 김봉렬. (2004). “불교건축”, 솔.
- [4] 김원용. (1989). “한국고고학 개설”, 일지사.
- [5] 문안식. (2006). “백제의 흥망과 전쟁”, 혜안.
- [6] 방학봉. (2006). “고구려 성과 절터연구”, 신성출판사.
- [7] 신형식. (1999). “한국의 고대사”, 삼영사.
- [8] 신형식. (2003). “고구려사”, 이화여대출판부.
- [9] 신형식. (1996). “집안고구려 유적의 조사 연구”, 국사편찬위원회.
- [10] 이영훈·신광섭. (2003). “고분미술”, 솔.
- [11] 이은구. (2003). “인도의 신화”, 세창미디어.
- [12] 이종욱. (2002). “신라의 역사”, 김영사.
- [13] 주장현. (2007). “우리문화의 수수께끼1”, 한겨레출판
- [14] 주남철. (2006). “한국건축사”, 고려대출판부.
- [15] 최상준 외. (1999). “조선과학기술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16]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백제의 건축과 토목”, 아디람.
- [17] 히스토리카한국사편찬위원회. (2007). “고구려+백제”, 이플리오.
- [18] 한국박물관연구회. (1999). “한국의 박물관과 문예마당”, 한국박물관연구회.
- [19]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20] 박경식 외. (2008). “경상북도의 석탑(1~2)”, 국립문화재연구소.
- [21] 최영기, 이근직, 남시진. (2009). “경상북도의 석탑3”, 국립문화재연구소.
- [22] 이근직, 신용철, 박홍국, 김현용, 김유화. (2010). “경상북도의 석탑4”, 국립문화재연구소.
- [23] 이근직, 신용철, 한욱, 김유화. (2011). “경상북도의 석탑5”, 국립문화재연구소.
- [24] 남시진, 조은경, 박경식, 조윤정. (2004). “전라북도의 석탑”,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위논문

- [1] 권강미. (2001). “통일신라사천왕상 연구”, 동아대석론.
- [2] 임제환. (2004). “경주 불국사 다보탑 연구”, 동국대석론.
- [3] 이광현. (2011). “통일신라 금강역사상 연구”, 동국대석론.
- [4] 이순영. (2007). “화엄사 사사자석탑에 관한 연구”, 단국대석론.
- [5] 이은철. (1999). “한국의 사자석상 연구”, 교원대 학석론.
- [6] 최미경. (1999). “불국사 석가탑 - 다보탑 조성에 대한 시론”, 이화여대석론.
- [7] 한정호. (2002). “감은사지 동 · 서삼층석탑의 연구”, 동국대석론.

학회논문

- [1] 김보형. (2002). “통일신라십이지상 도상 연구”, 회당학보7집.
- [2] 김지현. (2010). “통일신라 불탑의 사천왕상과 그 의미”, 문물연구, 동아시아문물연구 학술재단.
- [3] 김효율. (2010). “석가탑의 황금비율”, 신라문화 제36집.
- [4] 이형구. (1982). “고구려의 향당제도 연구”, 東方學志32.
- [5] 전정중. (2001). “新羅石塔 八部衆像의 樣式과 變遷”, 文化史學16호.
- [6] 한정호. (2011). “감은사지 쌍탑과 고선사지삼층석탑의 비교 고찰”, 石堂論叢 48집.

참고사료

- [1] “삼국사기”
- [2] “삼국유사”
- [3] “삼국지”
- [4] “위서”
- [5] “신증동국여승지람”
- [6] “元興寺緣起”
- [7] “黃龍寺剝柱本記”

참고사이트

- [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http://www.gcp.go.kr>.
- [2] 국립문화재연구소 <http://www.nich.go.kr>.
- [3]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http://www.cha.go.kr>.

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ve by the 7th and 8th centuries
the Unified Silla Three storied stone pagoda

Lee, Na Hoon

(Supervisor Kim, Jong Hyun)

Majoring Art and Culture Design

IT-Design Fusion Program

Graduate School of NID Fusion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re are not many cultural assets remaining in Korea in spite of great history. But fortunately, there are some cultural assets still remaining that are made with stone, showing an aspect of our long history.

those cultural assets, stone pagoda is the one which shows traditional values and images of ancient society

In this study, format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structure, decoration of three storied stone pagodas of unified Shilla will be discussed to newly propose structural value of stone pagoda.

To underpin this study cultural background of three Kingdoms will be studied as a preceding research in chapter 2.

Goguryeo had the best masonry techniques among those three Kingdoms and created outstanding royal tombs and castles. Baekje build up its competencies based on Goguryeo's masonry skills and diffused technique to surrounding countries, and created the first granite pagoda.

Not as Goguryeo and Baekje who had active cultural exchange, Shilla was comparatively behind in cultural aspect. In Jinheong Kingdom 6th century as Shilla occupied Han river basin, Shilla obtained major trade route with China and made significant development throughout the society. Later, in the

early stage of 7th century, the 'Brick Pagoda' which is the matrix of the 'Three storied stone pagoda of Unified Shilla' appears. To sum up, it can be said that the 'Three storied stone pagoda of Unified Shilla' was born on the base of Goguryeo's masonry techniques and sensibility of Baekje.

In Chapter 3,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of Pagodas of three Kingdoms will be explained and how they had been development into further stage and its interrelation will be also discussed. Through this research, it is clearly found that the pagoda of Shilla had the same formality with Baekje and also supported by techniques of Baekje.

In Chapter 4, historical background, characteristics and origins of major three storied pagodas of unified Shilla in 7th~8th century will be explained. Chapter 5 will discuss about some formative elements such as ; ① Shape ② Structure ③ Decoration. In overall formality, visual characteristics of wooden architectures were adopted but it is newly applied to stone pagodas. Decoration was done by relieve method, originally stone pagoda was started with imitation of wooden pagoda accordingly characteristics of wooden pagoda in stone pagoda is inevitable. However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stone pagoda, characteristics of wooden pagoda was gradually diminished. In the end, the pillar of wooden pagoda remains in that of stone pagoda, and roof design of wooden pagoda remains in that of stone pagoda.

Finally formality of stone pagoda made in Shilla applied to base of roof stone, it becomes the typical formality of complete stone pagoda. With these characteristics and mathematical proportions, stone pagoda can be a great piece of art.

As described, typical formality of three storied stone pagoda is created in 7th century, later

the most perfect proportioned pagoda in Korean history-'Bulguksa stone pagoda' and the most beautiful pagoda 'Dabopagoda' is created in the middle of 8th century.

Afterwards, "AE30" technique is developed which is a relieve methods that is used to decorate various guardiances of Buddhism

At the end of 7th century, a door shape sculpture had appeared in Kosunsa stone pagoda, 12-animals figure on Wonwonsa three storied stone pagoda in 8th century and the four Devas figures were decorated on 1st story of pagoda using relieve method. On the Changlimsa 3 storied pagoda, 8 section group shape was carved for the first time.

Also in Whaum three storied pagoda, escaping from the typical formality, it shows even more creative tries with lion statues on the upper level of pagoda. Each statues are appeared on stone the pagodas with religious meanings and it inspired and influenced on artworks of stone pagoda in future generation.

Three Storied Stone Pagoda Unified Silla proportional coming from physical beauty and formative beauty, delicate decorative wooden building in the application been structur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the 7th and 8th centuries and reflected its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se Korean physical beauty from a new perspective, various attempts through transformation, development hope.